

04-46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새로운 미디어와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진화

2004. 2

연구기관: 동국대학교
연구책임자: 이호규

제 출 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새로운 미디어와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진화』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2

연구기관: 동 국 대 학 교

연구책임자: 이 호 규

김상호(대구대학교)

김대식(KBS 방송문화연구소)

목 차

요약문	5
제 1 장 서 론	9
제 2 장 테크놀로지에 관한 대조 담론 분석	12
제 1 절 테크놀로지와 유토피아	12
1. 공간의 유토피아	12
2. 근대성과 유토피아의 관계: 이미 정해진 공간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로 ..13	
3. 새로운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에 대한 은유	23
제 2 절 테크놀로지와 디스토피아	37
제 3 장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	45
제 1 절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한계	45
1. 기술 결정론 논의	45
2. 사회 구성론 논의	47
3. 사회 구성론의 한계	49
4. 올리코브스키의 구조 모델과 테크놀로지의 소멸	51
제 4 장 테크놀로지와 사람, 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변증법적 관계	56
제 1 절 환경 조직의 형태로서의 테크놀로지	56
제 2 절 하이데거의 테크놀로지관	60
제 3 절 테크놀로지와 인식론의 관계	63
제 5 장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70
제 1 절 해롤드 이니스의 매체관	70

1. 편향 개념의 형성 과정	71
2. 시간 편향적 미디어와 공간 편향적 미디어	73
3. 매체의 편향, 그 내용과 의미	75
제 2 절 마샬 맥루한의 매체관	81
1. 기술 문화적 해석학	83
2. 매체의 내재화와 감각 비율의 전환	88
3. 인간의 확장	90
4. 맥루한의 매체관	94
제 6 장 결 론	98
참고문헌	105

표 목 차

〈표 5-1〉 기술-문화적 변형의 전개	86
〈표 5-2〉 기술-문화적 전환과-감각의 공간	95

그 립 목 차

[그림 3-1] 울리코브스키의 테크놀로지의 구조 모델	52
[그림 4-1] 테크놀로지, 사회,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변증법적 관계	68

요 약 문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항상 해당 미디어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한 유토피아적 기대와 사회의 진보에 대한 전망을 가져온다. 이러한 유토피아 담론에 도전하는 디스토피아 담론은 비록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테크놀로지를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을 지배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가 인간에게 행사하는 규정력이나 인간의 테크놀로지 통제력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에 기저하고 있는 일방적 관계가 아닌 변증법적 작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변증법적 작용방식의 파악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현상들 자체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인간의 담론의 형성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담론이 형성되는 철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유토피아적 담론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변증법적 관점에서 테크놀로지를 접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함이 두 번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한 해롤드 이니스와 마셜 맥루한의 이론을 앞에서 논의한 변증법 모델과 연관시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정체

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과 결과

근대성이 진행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사회 인식론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근대성 이전에는 모든 사회상들이 신과 고대 철학자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었다. 중세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 혹은 지식의 준거들을 과거의 철학자들로 삼았다. 그러나, 지식은 힘이더라는 등식과 함께, 이제는 과학 지식의 축적을 통한 진보가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 이러한 진보 개념의 등장과 함께, 시간의 개념이 순환성에서 선형성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리던 유토피아는 어디에 있는 것이라는 공간의 유토피아에서 미래를 향해 사람들이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간의 유토피아로 전이하였다.

산업혁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제반 요소들에 있어서 효율성의 개념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서의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바로 진보를 가져온다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목적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테크놀로지 디스토피아가 나타났다.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자체 개발이 목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테크놀로지에 내재하고 있는 효율성과 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는 매카니즘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은 공히 테크놀로지가 사람과 사회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분석보다는 테크놀로지를 사회와 분리시켜 테크놀로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도출되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를 간과하고 있다.

과연 테크놀로지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들의 논의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에 대한 철학, 사회, 인식론 등

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문헌들을 살폈다. 결국, 사람과 환경을 매개하면서 사람들의 실천 행위로 정의되는 테크놀로지는 환경과 사람의 관계 역학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하드웨어 의미의 테크놀로지이고 벡터 의미의 테크놀로지이다. 이 때의 벡터는 해롤드 이니스의 편향과 마셜 맥루한의 사람들의 감각의 재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3. IT의 영향과 전망, 이슈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 무렵에 날기 시작한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지혜의 신을 의미하며 황혼은 문명의 최고 정점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어떠한 체제이든 시간에 그 체제를 움직이는 인지 체계가 세월이 흐르면서 경직되어 외부의 충격 혹은 내부의 변화를 흡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해당 사회 혹은 체제는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이 환경을 재구성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기제이고, 해롤드 이니스와 마셜 맥루한 등이 주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감각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회의 테크놀로지 정책은 다양성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즉 오직 하나의 편향과 한정된 감각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 나아가 사회는 자신들의 인지 체계를 객관화 시키면서 플라톤의 동굴에서 삶을 영위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현재의 인터넷 정책을 살펴보면 앞의 논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중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슬로건에 입각한 인터넷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이라는 환경과 인간을 맺어주는 기제의 정체성이 축소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은 이제는 더 이상 테크놀로지가 수단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환경으로서 인지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현재, 물질(자연)의 세계, 사회(social world),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제1장 서론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은 항상 해당 미디어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한 유토피아적 기대와 사회의 진보에 대한 전망을 가져온다. 하지만 기존의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그 이후의 사회적 영향력을 되돌아 볼 때, 이러한 유토피아적 전망은 테크놀로지가 지닌 한 측면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토피아적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은 근대적 사고 체계의 출현과 그것의 구체적 실현 양상으로서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고체계에 의하면 테크놀로지 그 자체가 지닌 규정력 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체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출현은 항상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욕망이 성취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토피아적 이상과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조우하게 된다.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장악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파악하면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담론을 생산하게 되고, 반대로 테크놀로지의 규정력을 강조하면 테크놀로지에 의한 인간의 지배라는 디스토피아적 담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현재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의나 파악 방식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적 담론이 대립하는 구도이다. 하지만 테크놀로지가 인간에게 행사하는 규정력이나 인간의 테크놀로지 통제력은 일방적 관계가 아닌 변증법적 작용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 변증법적 작용방식의 파악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현상들 자체가 아니라 테크놀로지와 인간의 담론의 형성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즉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담론이 형성되는 철학적 사회학적 배경을 파악하고, 그 담론의 형성과정에서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에 관한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을 바탕으로 테크놀로지의 본질적인 내용이 테크놀로지의 ‘기술적인 부분’

이라기보다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변증법적 규정 과정이라는 주장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이것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위험성에 대한 숙고를 제공한다. 는 점에서 기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논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테크놀로지에 관한 유토피아적 담론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인식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비판적,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접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테크놀로지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근대성 일반에 대한 비판의 과정과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에 대한 비판적 재고의 과정이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전체적인 목표는 테크놀로지 담론을 통해서 살펴본 근대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근대성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진보가 최고의 목적이 되었다. 이러한 진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모든 제반 요소들에 있어서 효율성의 개념이 전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사회에서의 테크놀로지의 도입은 바로 진보를 가져온다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목적을 위한 수단이 목적으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적인 담론은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가치를 신비스럽게 생각함을 골자로 한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담론에 대한 논의는 근대성 프로젝트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테크놀로지에 관한 유토피아적 담론들을 살핌으로서 근대성과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에 관한 담론의 관련성을 도출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테크놀로지에 관한 부정 변증법적 접근 방식에 분석을 초점을 두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테크놀로지가 ‘도구’ 혹은 ‘목표’가 아닌 ‘환경’으로서의 매체, 테크놀로지에 관한 분석 틀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와 근대성 그리고 테크놀로지 디스토피아 등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둘째,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논의의 문제점과 그 한계를 도출할 것이다. 셋째, 새로운 시각의 정립을 위해 테크놀로지에 관한 여러 분야의 논의들을 검토, 다양한 견해를 종합하여 테크놀로지에 대해 양립하

고 있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통합하는 틀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을 검토함으로써 대립되고 접근들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을 모색할 것이다.

테크놀로지 중심적 사고 혹은 기술결정론으로 분류되었던 해롤드 이니스(H. Innis)는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또한 사회가 테크놀로지에 일 방향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간과 공간을 매개로 하여 테크놀로지와 사회가 변증법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에서 보여주는 역사 변화의 선형성을 부정한 아도르노의 부정변증법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니스의 논의와 아도르노의 논의를 결합함으로써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지양함으로써 과연 테크놀로지가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모델을 제시할 것이다. 이외에, 해롤드 이니스의 영향을 받은 마셜 맥루한(M. McLuhan)의 매체관을 재조명함으로써 과연 사람들에게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안을 제공하고자 함이 본 보고서의 목적이다.

기대성과로서는, 첫째, 테크놀로지에 관한 막연한 유토피아적 담론의 위험성을 지적함으로써, 테크놀로지 논의를 보다 심화 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테크놀로지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배경을 밝힘으로써, 실제 테크놀로지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 당사자들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 주체와 영역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성과 인간성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교과목이나 논의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논점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책 입안자나 집행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힌다. 특히, 요즘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정책가들로 하여금 신속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하고자 하는 테크놀로지의 정체성 파악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제 2 장 테크놀로지에 관한 대조 담론 분석

제 1 절 테크놀로지와 유토피아

1. 공간의 유토피아

사람들은 완전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 자연 혹은 사회의 재해와 병리로부터 벗어나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함이 사람들의 본성이다. 완전함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사회의 완전성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의 완전성과 사회의 그것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한 사람들의 완전함이 사회의 그것을 보장하는가? 아니면 사회의 완전성이 사람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완전성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들은 바람직한 모습을 종종 상상한다. 과연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람직함은 구체적인 목표를 내재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 어떠한 수준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자신과 사회의 완전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를 찾는다. 이는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항상 자신들의 인지 세계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중개자로 설정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꿈꾸어 왔던 완전성이 무엇이고 완전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새로운 테크놀로지 혹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중개자로 설정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완전성에 대한 욕망은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의 이상향 논의에서 철학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이상향 논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천성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했다. 다만, 이상향 –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회 – 은 그 어디엔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라는 단어

는 두개의 그리스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서 장소의 부재(no place)를 뜻하는 outopia 와 행복한 장소를 의미하는 eutopia 의 결합으로 나타났다(Kumar, 1991: 1). 유토피아는 단어 본래의 의미와 같이 어떠한 장소도 아니면서 행복한 장소라는 “공간적인 이미지”와 연결되어 나타났다.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사회의 완전성이 미리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항상성(homeostatic)을 갖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였다. 즉, 이상향은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는 다소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이상향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의 이상향 논의는 근대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실천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던 관계로 근대성 작업은 바로 실천력이 있는 이상향의 모습과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근대성과 유토피아의 관계: 이미 정해진 공간에서 실현 가능한 미래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논의에서 과학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유토피아 사회 구성원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매우 복잡한 테크놀로지를 창조하여 이용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More, 1997: 85). 더욱이 그들은 그들의 생산물의 증가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보면, 모어의 유토피아는 근대성의 중요한 특징이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Kumar, 1991: 53).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구성원들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에, 과학이나 테크놀로지 발달에 의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사람들이 자연의 법칙에 의문을 갖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자연을 정복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의 인지구조에 정착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였다.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지식은 힘이다”라는 인식은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 제기되었다. 베이컨에게는 지식은 축적성이 있으며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후손까지 확장될 수 있다(Nisbet, 1980: 113). 이러한 점에서 베이컨이 근대적 양식의 과학 철학과 방법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과학 혹은 학문의 중요 임무는 단지 과거의 지식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전부였다. 중세 시대와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을 결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비록 새로운 이론일지라도 소크라테

스, 플라톤, 혹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상가들의 주장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따라 해당 이론의 정당성이 확보되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세 사상가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독창적이라는 것에 대해 그리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고대 사상가들의 주장에 배치되는 새로운 이론 정립에 그리 흥미를 갖고 있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 준거적인 태도는 근대성이 시작되면서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토마스 모어와 같이 베이컨 또한 그의 이상향의 견해를 묘사하기 위해 섬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베이컨의 *The New Atlantis* 간에는 매우 다른 점이 있다. 토마스 모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이상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이컨은 사람들에게 처방형의 유토피아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베이컨은 모어의 유토피아 담론과는 달리 당시 사회, 정치 등 모순점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이컨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수준에서 유토피아를 논의함으로써 과거의 개념적 수준에서의 유토피아가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폭제를 제공하였다.

베이컨은 그의 유토피아에 나타나고 있는 Salomon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그것의 목적은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물들의 비밀스러운 운동을 파악함이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능력의 한계를 확장함이다”(Bacon, 1952: 210). “이러한 학문 활동은 순수 지식의 진보를 지지하기 위해 관찰, 실험 그리고 연역법을 결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사물들이 사람들의 삶에 사용되게끔 전환시키는 것이다”(Bacon, 1952: 21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베이컨은 우리들에게 과학적인 교리를 인지하게 하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가. 진보 개념의 출현과 변화

약 16세기에서 18세기 말에 걸친 계몽의 시대에 사람 혹은 사회의 진보(progress)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 기간의 진보는 테크놀로지의 진보가 아니라 단지 지식의 진보를 의미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갈릴레오, 베이컨, 칸트, 뉴턴, 로크, 볼테르, 그리고 흄과 같은 사상가와 과학자들이 그들의 연구를 통해 인류의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갖고 왔다. 이를 계기로 서구에서는 자연과 사람들의 신비함을 이해

하기 위해 과학과 이성에 의존하게 되었다. 즉, 기존의 자연을 경외시 하면서 자연의 논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자연에 숨어있는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을 사람들이 정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근대성이라는 프로젝트가 실천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진보 개념과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순간적인 진보이든 영원하면서 끝이 없는 진보이든지 간에 진보를 근대성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아마도 가장 강력한 진보의 옹호론자는 프랑스의 철학자인 콘도르세트(Jean Antoine Nicolas de Condorcet)일 것이다. 그는 그의 *Sketch for a historical picture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1795)에서 사람들의 역사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미개한 짐승에서 문명, 과학, 그리고 이성을 존중하는 문화적인 존재로 변형될 수 있는가를 기술하였다.

진보라는 개념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다. 지리학, 생물학, 고고학 등의 발달로 인해 세계가 단지 7,200년이라는 기독교의 교리가 의문시 되었으며 그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¹⁾ 프랑스 철학자인 De Buffon은 그의 책인 *Histoire Naturelle* (1749)에서 우주의 연령을 168,000년으로 확장하였다. 연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주장은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다. 즉 중세 시대까지 교회의 권위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 역사를 변경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미래가 필요하였다. 즉, 이미 예정된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 삶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의 존재가 절실하였다.

앤소니 기든스(Giddens)에 의하면, 근대성은 “비어있는 시간(empty time)”을 요구하였다. 이는, 시간과 특정한 공간 혹은 상황과 분리되어 있으며 시간은 연속선상에서 계속해서 선형적으로 흐르고 있어야 한다(Giddens, 1990: 16).²⁾ 이를 미래에 적용

1) 기독교에서는 세계의 역사가 약 7,200년으로서 과거의 3,600년의 기간동안 인류는 평화와 행복을 누렸지만 예수이래로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따라서, 역사가 끝나는 시점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라는 논의를 견지하였다.

하면, 이러한 주장은 장기간에 걸친 계획과 아젠다를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상향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글자 그대로 의미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 보다는 실현 가능한 미래의 발전 단계인 현재 시간 이후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사람들의 주체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다고 믿게되었다. 바로 계획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변화에서 기인한다. 진보의 개념은 시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등이 계몽의 시대에 발아되면서 콘도르세트의 작업으로 절정을 맞게 되었다.

콘도르세트에 의하면, 사람들의 역사는 10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단계는 전 단계보다 매우 문명화 된 사회이다. 마지막 단계인 10단계는 무엇보다도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는 바로 “사람들의 절대적인 완전성”이 성취되는 단계이다. 쿠마는 “과학이 근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사고의 형태이다. 과학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자유롭고 동등한 사회를 가질 수 있는데 필요한 물질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Kumar, 1991: 59). 이와 같이 콘도르세트는, 비록 과학자들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지배되는 기술 사회(technocratic society)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이 사람들을 질곡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결국에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성으로 자신들만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라라고 믿었다.

콘도르세트는 매우 역동적인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모든 사물들은 이미 정해진 목적이 있다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는 달리, 진보를 “이미 목적론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Habermas, 1984: 146)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완벽함은 바로 과학의 진보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이

-
- 2)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과 같이 시간 또한 순환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순환적인 시간에 대한 인식은 고대 왕들의 무덤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를 준비하는 의식이였다. 따라서, 내세를 맞이하는 순간까지 현세와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 있을 때 고인이 사용하였던 부장품들을 무덤에 보관하였다. 시간은 순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그러나 근대성 이후에는 시간은 단지 미래를 향해 흘러가며 이미 지나간 시간은 영원히 복구할 수 없다고 하는 선형적인 시간 개념이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사람들은 순환성과 선형성의 시간 개념속에서 삶을 살고 있다.

러한 사회 인식론의 변화로 인해 사람 혹은 사회의 완벽함이 진보와 동일하다는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콘도르세트는 “자연은 사람들의 능력의 완벽함에 어떠한 제약을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의 완벽함은 무한하다”(Condorcet, 1955: 55).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과의 공존의 위치에서 자연의 지배를 벗어나 주체적으로 역사를 관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과학의 힘을 이용한 진보로서만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진보 그 자체가 사람들의 목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렇게 정태적인 세계관을 동태적인 세계관으로의 대체를 통해 콘도르세트는 근대성의 현실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폭제를 제공하였다.

아우구스트 콩트(August Comte)는 자연과 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계는 과학의 원칙에 의해서 해석되고, 체계화되고, 그리고 통제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앞에서 살펴 본 베이컨과 콘도르세트이상으로 그는 과학의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 콩트는 모순, 모호함, 그리고 미신으로 가득찬 사회를 뉴턴의 물리학과 같이 모든 것들을 합리성의 이름으로 동등하게 변형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그는 “천문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생물학이 각각의 분야를 객관화시켰듯이 사회 혹은 사람들의 영역을 그렇게 할 수 있는”(Nisbet, 1980: 252) 사회학을 창시하였다.

콘도르세트와 같이 콩트는 역사 철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역사를 신학, 형이상학,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과학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단계에서는, 초자연적인 생각들이 흩어져 있는 작은 생각들을 연결시켰다.

환언하면 관찰 된 사실들이 가공된 사실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졌다. ... 반면에, 두 번째 단계는 첫째 단계에서 셋째 단계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데 초자연적 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연적이지도 않다. ... 셋째 단계는 참다운 과학의 시대인데, 이 단계에서는 사실들이 일반적인 법칙에 의해 새로운 원칙으로 전환된다(Comte, 1998: 81-82).

콩트에 의하면 상기의 세 단계에 걸친 발전이 사회 연구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과학들의 발전을 가져 왔다. 따라서 그의 사명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위한 긍정적인 학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사회 연구를 통하여 얻은 지식들은 과학과 합리성에 근거한 전혀 다른 사회를 창조하는데 사용되었다. 콩트는 이러

한 작업들을 통해 사람들을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Nisbet, 1980: 252).

콩트가 앞에서 언급한 사상가들과 지식, 특히 과학의 영향력을 강조함은 공통된 면이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콩트는 자유와 해방이 사람들이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유, 평등, 그리고 대중의 주권들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교리”를 거부할 수 있는 엄격한 사회 체계를 원했다(Nisbet, 1980: 257). 형이상학에 근거한 교리는 그가 이상으로 삼고 있던 유기적인 사회의 질서를 해치는 병폐로 간주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배제된 사회의 안정과 질서가 바로 사람들의 진보를 약속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으로 바라보았다. 이는 진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발전 과정이다. 결국 콩트는 사회와 자연 현상은 다르지 않으며 합리성의 이름으로 객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유토피아 담론에 합리성을 첨가함으로써 이제는 이상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실천력을 제공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럼으로써, 이상향은 실제로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는 데 기초를 세웠다.

이와 더불어 이상향 건설에 있어서 사람들의 주체성이 맑스에 의해 다시 강조되었다. 맑스가 이상향 논의에서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그가 비록 이상향 논쟁을 거부하면서도 사람들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를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이외에 그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이상향 논의의 전환을 가져 왔다. 첫째, 그는 다윈의 진화론을 빌려 “역사에 있어서 계급투쟁을 설명하는데 진화론이 순수 지식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Nisbet, 1980: 259). 맑스는 다윈의 진화론 신봉자로서 헤겔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는 필연적으로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진보를 통해 사람들은 최대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이상향 논의에 산업의 측면을 첨가하였다. 사람들의 노동은 자본주의를 맞이하면서 노동의 소외, 더 나아가서 인간의 소외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소외는 바로 노동의 분업을 통해 야기된다. 노동의 분업은 바로 산업화로 인해 한층 강화되었다. 이러한 산업화를 분석 대상으로 하면서

과연 어떠한 사회가 이상적인가를 논의하는데 있어 과거의 과학이라는 것보다는 이상향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중세이후 시작된 근대성 작업이 진보라고 하는 의식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과거의 지식이나 전통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이미 예정된 운명을 수동적으로 다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단지 진보 의식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진보는 과학의 발전으로 지식이 축적되며 이러한 지식을 산업화에 응용함으로써 사람들은 진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토피아는 미래에 있다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나타났다.

이상향에 대한 논의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에 대해서이다. 쿠마가 지적하였듯이, “모든 이상향은 허구이다. 그것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지 가능한 세계이다”(Kumar, 1991: 25).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향 논의는 현실 세계와 이상향 논의를 하는 학자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상태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였다. 이상향 논의는 기술의 차원과 처방의 차원으로 대별 될 수 있는데, 플라톤과 토마스 모어의 이상향은 기술에 그친 반면에 그 이후의 이상향 논의들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는 처방적인 이상향 논의이다.

실제로, 진보에 대한 정신이 19세기의 지성인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었다. 또한 진보를 일종의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영향력으로 간주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Nisbet, 1980: 237). 요약하면, 사람들은 근대성 이후 자신들이 인지한 자신들의 능력에 도취한 나머지 지금까지 그들이 경이함을 표하였던 자연을 합리성이 근거한 산업화된 기술 세계(technosphere)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근대성 이전에는 사람들은 완전하고 선한 사회를 꿈꾸어 왔다. 그러나 그 당시의 이상향은 현실에서는 성취하기가 어렵다고 보면서 어디엔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근대성 이후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의 현재 조건이 예정되어 있으며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변화될 수 있는 무엇이라는

의식이다. 비록 속도는 느리지만 사람들을 과거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사람들은 현재의 환경 변화에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라 환경을 개조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정치는 일종의 계획이 되었으며 이상향의 개념은 처방이 되었으며 또한 바람직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즉, 과거의 이상향 철학은 단순히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공간의 유토피아를 기술하는 차원이었으나 근대성 이후의 이상향은 시간의 유토피아를 위한 처방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테크놀로지 유토피아 출현

과학을 통한 지식의 축적으로 인해 사람들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유럽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정신이 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곳은 바로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건국 초기의 사상가이며 정치인들인 벤자민 프랭클린과 토마스 제퍼슨은 진보는 사람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는 물질의 번영을 뜻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과학의 발달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번영은 보다 나은 삶이었다. 당시 미국의 정치가들은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유럽 의존의 경제 체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계에 기반한 경제 체계로 빨리 전환시켜야 했다. 이것이 유럽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가져다 줄것이라 인식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기술이 사람들의 진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산업 혁명이 진행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제임스 보이드(James Boyd)는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문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발명품과 진보들 중에서 19세기에 성취된 성공들과 경이함은 모든 시대를 능가한다고 역설하였다(Boyd, 1899: 1).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항상 새로운 것에 의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발명가들을 신과 같은 인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였다. 당시의 New York Tribune의 편집인이었던 호라스 그릴리(Horace Greeley)는 1853년 뉴욕에서 열렸던 발명품 전시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들은 산업과 기술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결과물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 세계의 모든 기술들은 우리들이 갖고 있으

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들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민주화시켰다”(Greeley, 1853: 226-227).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당시의 에토스는 18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나타난 소설, 논문, 회화, 그리고 조각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약 40년에 걸쳐 나타난 책들의 제목을 보면, 진보의 80년(Eighty Years of Progress), 진보의 인류(Men of Progress), 19세기의 승리와 경이함(Triumphs and Wonders of the 19th Century), 진보의 시대 혹은 과학의 승리(The Progressive Ages or Triumphs of Science) 등의 진보, 기술, 과학, 그리고 인간의 승리 등을 찬양하는 서적들이 많이 나타났었다. 이를 보면 당시의 사회 인식은 기술이 사회와 사람들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종의 도그마처럼 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발전이 상징의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다가섰다는 것이다. 기술의 상징화는 일반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제시하면서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역사가들은 “기술의 숭고함(technology sublime)”이라는 용어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³⁾

이 기간 동안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기술 발명의 이로움을 묘사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최대한 이용하였다. 광고 대행사들은 산업 기술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였으며 연상(associations)과 제안(suggestions)이라는 심리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들의 심리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이 당시의 사회 모습을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⁴⁾ 이외에, 대중 매체와 공상 과학

3) 사람들은 동물과 달리 상징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두 세계속에 살고 있다. 상징의 세계를 통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상징의 세계에 기술을 소구함으로써 기술의 실체를 바라 보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광고 대행사들은 새로운 기술과 그것에 의해 나타난 제품들을 보이지 않은 심리적인 욕구와 연결시켜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면 효율성 제고, 사회적 지위, 자유 등과 같은 이상들이 현실로 다가설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러한 광고 유형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

소설도 기술을 통한 이상향 달성이 가능하다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새로운 것은 사람들에게 경외의 대상으로 다가섰고 이러한 새로움은 사람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를 다른 시대와 확연히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산업혁명으로 나타난 계급간의 갈등 등의 사회 문제를 기술 발전이 해결할 수 있다는 지배적인 편견이 나타났다. 레오 맑스(Leo Marx)에 의하면, 산업 기술 시스템의 출현으로 19세기 말에 기술과 관련된 진보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계몽을 위한 사회 진보가 근대 초기에는 정치에 의해서만 가능였지만, 이제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다. 기술이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레오 맑스는 산업, 예술, 건축 등의 디자인에 기저하고 있는 효율성, 합리성, 질서, 그리고 통제를 “기술 정신(technocratic spirit)”이라 하였다(Marx, 1994). 데이비드 노블(David Noble)에 의하면 기술이 “기업 자본주의(corporate capitalism)”의 중요한 기제가 되면서 산업 혁명이 효율적으로 완수될 수 있었다. 기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기술의 원리가 지배적인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Noble, 1979).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을 동경의 대상과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이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중간의 무엇을 요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경외감이 기술로 이전된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기술의 숭고함으로 나타났다. 자연에 대해 사람들은 비록 경외심을 갖고 있었지만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자연을 통해 무언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한 사회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자연에 대한 공리적인 시각으로 인해 기술은 자연을 개조하여 사람들을 위해 이로운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예술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기술은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 바라는 그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산업에 응용되면서 인간의 이상향 실현을 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등장한다.

사람들이 기술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연은 신비하지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은 자연과 비교하였을 때의 인간의 한계를 의미하였지만, 기술에 대한 경외감은 바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느꼈던 한계를 소멸시킴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던 자연을 자신들이 만든 기술의 힘을 빌어 하나의 대상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경외심은 기술의 진면목⁵⁾을 감추면서 현재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면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 기술을 도입하면 미래에는 보랏빛 삶이 보장될 것이라고 하는 담론들은 현재에도 사회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술 유토피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고 자리잡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근대성 이후 그 중요성이 부각된 기술 논리에 의해 나타난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경우, 그것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사람들에게 친숙하거나 혹은 당시의 사회 인식론에 비추어 해당 기술을 이해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특히 여러 기술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된 전신부터 인터넷에 이르기까지의 새로운 매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인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겠다.

3. 새로운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에 대한 은유

가. 은유와 테크놀로지의 관계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들을 묘사하고 언급하여 사실들에 상응한 개념 혹은

5) 이 때의 기술의 진면목은 기술의 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에 대해 회의론을 이야기 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기술은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서 그 자체가 사람들의 목적이 되었다. 따라서, 기술이 갖고 있는 합리성 등과 같은 논리가 사회 전반을 지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술에 대한 단순한 경외심은 기술이 우리들에게 갖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없게 한다는 의미이다.

아이디어를 갖게끔 한다.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초기의 아이디어와 그것에 대한 일련의 논의와 논쟁들을 “구조화”함으로써 사람들의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은유(metaphor)는 새로운 영역을 연구할 때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한다. 새로운 상황 혹은 매체들이 나타났을 때, 새로움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은유는 사람들의 생각을 정형화시키며 새로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이다(Doctorow, 1977: 231-232).

레이코프와 존슨에 의하면 은유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첫째, 구조적 은유로서 어느 한 개념이 다른 개념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고, 정향(orientational)의 은유는 구조적 은유와는 달리 위-아래, 앞-뒤, 그리고 안-밖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언어로서 전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올라가고 있다 혹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등의 방향성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론적(ontological) 은유로서 앞의 은유와는 다르게 추상적인 사물들을 구체화하여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진정한 행복 혹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등과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한다(Lakoff, G., & Johnson, 1980: 3-26).

이와 같이 은유는 단순히 문법적이거나 또는 수사학적인 도구가 아니다. 은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길을 선택함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의 진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은유라 함은 새로운 것과 유사하게 보이는 기존의 사물 혹은 아이디어를 준거 틀로 하여 새로운 것을 이해함으로써 준거 틀이 되는 관점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관점이 발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은유는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전이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험을 이용함이라 하겠다. 특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타났을 때에는 앞에서 열거한 구조적 은유, 즉, ‘A는 B와 같다’를 이용하여 A와 B를 비교함과 동시에 그러한 비교를 통해 A라는 새로운 현상을 이해하곤 한다. ‘A는 B와 같다’라고 하는 은유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존의 B와 새로운 A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 더욱이, 정책 영역에 있어서, 상기와 같은 은유에 의한 이해는 바로 ‘A는 B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이해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즉 A와 B의 유사점과 다른 점에 대한 깊은 관

찰이 요구된다(Stuart Jay Kaplan, 1990: 41).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나타났을 때 상기와 같은 은유를 통해 새로운 매체의 성격을 파악하여 해당 매체를 구조화하였다. 전자 커뮤니케이션(electronic communications)은 현재 사회에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양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은유를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은유들은 문제를 개념화하는데 영향을 줄 뿐더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준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종종 개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적절하고 묘사적인(illustrative) 은유들이 테크놀로지로 인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어느 과학자가 주장하였듯이,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순수 기술적인 문헌에서만 나타났던 아이디어들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 이는 테크놀로지의 속성을 쉽게 충분히 묘사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 어떠한 은유를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Dawkins, 1976: 313).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을 기술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들은 그들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변화를 수용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초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은유들이 테크놀로지와 그들이 자아내는 사회 변화에 관한 우리들의 기존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과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결되고 형성되는가를 결정하게 된다. 즉, 테크놀로지의 불확실성을 은유들은 어느 정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러 은유들 중에 어느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정책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라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은유들 중에서 공중의 신문 외에 다른 은유들이 채택되었을 경우 현재와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가 있으며 또한 cable TV가 처음 나타났을 때 기존 방송의 연장 혹은 전혀 다른 매체라고 간주함에 따라 다른 정책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목격하였다.⁶⁾

6) Streeter, T. (1987) The cable fable revisited: Discourse analysis, policy, and the making

휴(Hughes)의 주장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는 외부의 영향에 저항하는 내적인 논리(internal logic)가 있다(Hughes, 1988). 그러나, 비록 테크놀로지 자체의 내적 논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해당 테크놀로지 구성요소들간의 상호 연결에 의해 나타나는 유연성은 외적인 요소들이 어느 정도 내적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네트워크의 디자인은 테크놀로지 그 자체보다는 그 시대의 철학적인 관점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즉, 세계관이 테크놀로지 디자인에 영향을 주고, 테크놀로지는 세계관의 반영을 가능하게도 할 뿐더러 그것을 제한하기도 한다(McGarty, 1992: 218-270). 이점에 있어서 은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래는 종종, 은유를 사용한 상상의 세계에서 논의되곤 한다. 따라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은유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해당 테크놀로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다.

나. 초기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에 대한 은유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실들과 생각들을 묘사하고 진술하는데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생각이 정형화되는 경향이 있다. 19세기 중엽에 새롭게 발견된 전자파는 커뮤니케이션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왔다. 사무엘 모스의 전자파를 이용한 전신은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을 분리시켰다. 전신 이전에는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도보 혹은 말을 이용하여 커뮤니케이션 하고자 하는 사람과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해야 했다. 그러나, 전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면대면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즉,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체를 움직일 필요가 없음

of cable televis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2), pp.174~200.: 스트리터는 정책 과정에서 나타난 케이블 텔레비존에 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기존의 CATV가 Cable-TV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중파 방송의 연장이란 간주되었던 CATV가 정책 과정에서 당시의 공중파 방송의 단점, 즉 한정된 스펙트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인지되면서 현재의 cable-TV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매체가 정책 과정에서 어떻게 인지되느냐에 따라 해당 매체가 어떻게 구조화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을 의미한다. 특히, 전자 커뮤니케이션은 당시의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나타난 철도 관리에 응용됨으로써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대량생산은 대량 소비를 요구하게 되었고 대량 소비를 위해서는 대량 유통이 절실하였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 대량 소비를 위한 백화점이 나타나고 대량 유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철도가 가설되었다.

철도가 미국에서 처음 가설되었을 때는 단선인 관계로 양쪽에서 열차가 출발할 때 상호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열차 출발과 동시에 어린 아이가 조랑말(pony)을 타고 출발하여 다음 역 혹은 그 다음 역에 열차 출발을 알림으로써 철도 체계를 관리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분리한 전신이 철도 관리에 적용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산업 혁명을 완수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에서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분리가 나타났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매체를 움직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 특이할 만한 시대의 경이스러운 발명”(Czitrom, 1982: 3.)인 전신이 문화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전신에 관한 은유

즉시성의 커뮤니케이션(instant communications)에 대한 일반인들의 반응은 “자궁심, 경외감, 그리고 흥분”과 의심과 두려움도 함께 나타났다(Czitrom, 1982: 6). 이에, 새로운 발견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가 당시의 중요한 화두였다. 일반인들에게 새로운 것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설득하는데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Susan Douglas, 1987: xis). 전신의 출현은 빛(lightning)으로서 가능한데 빛은 당시의 과학자들과 지성인들에게는 테크놀로지 승리였다. 1858년에 과학자인 죠셉 헨리(Joseph Henry)는 이제야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전신은 바로 “추상적인 과학을 실용적인 예술에 적용하여 물질세계의 고유한 힘을 문명화된 사람들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이제야 사람들의 지식이 자

연을 통제하게 되었다”(Joseph Henry, 재인용, Czitrom, 1982: 4). 전신이 출현한 19세기에 기술 전문가들이 전기를 이용할 수는 있었지만 과연 전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전기를 “과학의 시(the poem of science)”(E. Laurence, 1869: 569), 혹은 “하늘에 존재하면서 신비스럽고, 만져지지 않는으면서 ... 영혼과 물질을 연결시켜주는”(Daniel Davis, 1851: 3)⁷⁾ 그 무엇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렇게 전기를 신이 자신의 목적을 보다 한층 완수하기 위해 인간들에게 준 선물로 간주하였으며 과학이 신 자체로 동일시 할려고 하는 종교의 계시로 묘사되었다. “신은 전지전능한 자석이다(The Deity is the omnipotent magnet)”(C. Towne, 재인용, Marvin, 1988: 126.).

이렇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기의 놀라운만한 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전신을 영혼과 같은 신비스러운 힘으로 간주하였다. 심지어 1846년의 토론토와 나이에가라에 자리잡고 있었던 전신회사의 로고를 보면, “신이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느님의 빛이 지구에 왕립하였다”(Robert Collins, 1977: 25).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종교에 비유되어 묘사되었음을 목격할 수가 있다. 이는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나타났지만, 여전히 당시의 은유들을 살펴보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정복욕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또한 장거리의 커뮤니케이션은 종종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 “인류애(kinship of humanity)”(“The moral influence of the telegraph,” 재인용, Marvin, 1988: 199-200)를 보장한다고 보았다. “전신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야만성에 대한 승리를 나타낸다. 전세계의 평화와 조화가 과거 어느때보다 가능하게 되었다. 오래된 편견들과 적대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생각들을 교환할 수 있는 전신이 나타났기 때문이다”(H. L. Wayland, 재인용, Czitrom, 1982: 7). 심지어 전신을 사람들이 신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중개자로 설정하

7) 데이비스는 보스톤의 전기공이면서 사무엘 모스에게 전신 기기를 공급하였다.

였다. 사람들이 그들의 지력(intelligence)을 이용하여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1858년의 *New York Times*의 한 기사를 인용하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연과 대등하게 하였다.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창조자가 되었다”(New York Times, 9 August, 1858, 재인용, Czitrom, 1982: 10). 이러한 영적인 은유이외에 전신은 정치, 심지어 군사적인 용어로도 은유되었다. 전신의 공간과 시간의 소멸성을 강조하면서 “비록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있어도 그들은 전신을 통해 서로 감정을 느낄 것이며 서로 호감을 갖게 될 것이다”(Laurence T., 재인용, Czitrom, 1982: 12). *American Telegraph Magazine*의 편집인인 도널드 맨(Donald Mann)은 1852년과 1853년에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이 단지 정치적인 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신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결합될 것이다. 그럼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임을 느낄 것이다”(Donald M., 재인용, Czitrom, 1982: 11).

19세기에 한참 유행했던 유기적인 은유(organic metaphor)도 함께 사용되었다. 1838년에 사무엘 모스는 자신의 사업 기금 모금을 위해 의회를 설득할 목적으로 전신을 일종의 신경체계(nervous system)로 비유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지역들이 전신의 신경 체계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를 이웃으로 만들 것이다”(Samuel Morse, 재인용, Czitrom, 1982: 12). 1846년, 필라델피아의 한 신문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엄청난 발견은 우리나라를 떠나 전지구의 지역들로 하여금 동시에 호흡하며 다른 사람들의 호흡을 느끼게 할 것이다”(“The nerve of the Continent,” 재인용, Czitrom, 1982: 12). 따라서, 전신은 일종의 “조직화된 사회들의 신경 체계이며 그것의 기능은 동물 체계의 민감한 신경과 유사하다”(William, C., 재인용, Czitrom, 1982: 12). 1858년에는 최초의 대륙간 케이블이 가설되면서 한 신문 기사가 언급하기를, “내일은 문명국의 심장들이 고동칠 것이며 그 때부터 영원히 지구에서는 대륙간의 괴리는 소멸될 것이며 현재 그들의 관계를 결정짓는 시간과 거리의 조건들이 사라질 것이다”(Pool, 1983: 89).

이렇게 커뮤니케이션과 교통의 분리를 갖고 온 전신은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이라 묘사되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치적인 결합을 갖고 올 것이라 믿었다. 전신은 기독교의 이상인 만인의 평화와 조화를 성취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종교, 정치, 그리고 유기적인 은유가 사용되었다.

● 전화에 관한 은유

19세기 말에 나타난 다음의 새로운 테크놀로지인 전화에 대해서는 전신보다도 사람들이 더욱더 놀라운 태도를 가졌음을 알 수가 있다. 전신과는 달리 사람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은 가히 경이할 만하였다. 전신과는 달리 이용자들이 쓰고 읽어야 하는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았고 해독하기 어려운 코드를 읽기 위해 다른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었다. 또한 전화를 자신들의 직장이나 집에 설치함으로써 사용하기가 매우 용이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화는 전신보다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Crowley and Heyer: 147). 전화는 전신과 같이 사람들이 “신들만이 갖고 있는 전지 전능함을 갖게 되었다”(Erwin, C., 재인용, Pool, 1983: 151). 여타 새로운 매체와 같이 전화 또한 경이로움을 불러 일으켰다. 전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시에 다른 두 장소에서 용이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신과 같이, 전화 또한 기독교 관에 비추어진 은유를 자아냈다. “언젠가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할 것이며 그럼으로서 서로 형제애를 갖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세상에 평화, 인류를 위한 선’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날이 곧 올 것이다”(Pool, 1983: 89). 이렇게 전화를 초자연의 힘과 연관시킨 에토스가 20세기 심지어 21세기 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The Captive*와 *Remembrance of Things Past*의 5번째 권에서 여전히 전화는 감지할 수 없는 신으로 묘사되었다(Brooks, 1977: 64). 어쨌든, 1911년에 뉴욕과 덴버간의 설치된 장거리 전화로 인해 전화는 이제 진정으로 거리를 정복하였다.

거리의 소멸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 변혁이 도래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Pool, 1983: 79). Herbert Casson – 전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 은 전화로 인해

나타난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전화는 우리들로 하여금 매우 사교적이고 협조적으로 만들었다. 전화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고립감을 없애버렸다”(Herbert, 재인용, Pool, 1983: 79). 몇몇 사람들은 전화가 갖고 있는 잠재성, 즉 사람들간의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간주하면서 “사회의 새로운 조직”으로 간주하였다(“Telephone aids in a local electron,” 재인용, Pool, 1983: 79).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화라는 새로운 매체에 의한 접근성의 증가로 인해 정보 흐름의 기존 질서를 위협하며 기존의 사회 통제 방식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였다(Marvin, 1988: 66). 이렇게 전화는 전신보다 매우 민주적이고 국가의 단결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1926년 어떤 사람에 의하면, “만약에 전화가 1861년전에 나타났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내전(Civil War)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Arthur, 1926: 25).

전화는 전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즉각적이고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시키는 매체로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전화는 기독교 이상인 평화와 형제애 그리고 국내 정치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도덕성이 있는 매체로 간주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매체가 나타났을 때, 전문가이든 비전문가이든 새로운 매체들은 영적이고 유기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은유가 사용되면서 해당 매체의 중요성을 한층 부각시켰다.

● 라디오에 관한 은유

이러한 배경에서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가 19세기 말에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미국에 소개하였을 때는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사회의 진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더욱 더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외감이 점증되는 시대였다. 많은 사람들이

8) 당시에는, 비록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시각은 존재하고 있지만,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여 이해하였다. 따라서, 일반 생물과 같이 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과 공간이 분리된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결합하고 사회 내의 정보 흐름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았다.

19세기에 사람들이 이룩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한 전신과 전화에 대해서 경이스러운 태도를 갖고 있었다. *Scientific American*은 이 기간을 “진보의 세기”라 언급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완벽함을 향한 지적이고, 문화, 테크놀로지 그리고 도덕적인 발전에 대한 이상을 공간적이고 유기적인 은유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기차, 전신, 그리고 증기 기관은 거리를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으며 사람들의 생각의 만남은 보다 문명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산업 발전을 일종의 유행병으로 갖게 되었다”(“A century of progress in the United States,” 재인용, Douglas, 1987: 7).

1901년을 회고하면서, *Nature*지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공간을 소멸시키는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1800년의 교통의 속도와 1900년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두 세기간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The new century,” 재인용, Douglas, 1987: 7). 또한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듯이 테크놀로지를 남성으로 자연을 여성으로 의인화 하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자연은 이제 우리들이 그녀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그녀 자신의 비밀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Popular Science Monthly, 재인용, Douglas, 1987: 8).

라디오가 처음 출현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비하고 개척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환경으로 다가섰다(Douglas, 1987, xxviii). 심지어 테크놀로지 전문가들 사이에도 라디오를 이해하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무선에 대해서 일찍부터 연구해 온 영국의 물리학자인 올리버 로지(Oliver Lodge)가 1907년에 “우리가 하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을까? 혹은 만질수 있을까? 혹은 무엇이 근접한 유사품인가? 아마도 하늘과 유사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가깝게 느끼며 다루고 있다”(Oliver Lodge, 재인용, Czitrom, 1982: 65). 전신과 전화처럼, 라디오 또한 초월과 도피 그리고 두려움과 의심을 동반하였다(Czitrom, 1982: 187). 그러나, 라디오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와는 달리 통제하기가 어려운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었다. 라디오는 선이 필요 없으며 전화를 이상하게 공간의 어느 방향으로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다(Covert & Stevens, 1984: 202). 그것

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였다. 접근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별로 비싸지도 않은 가정용 수신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호를 전송/수신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다(Douglas, 1987: xxvii).

라디오라는 무선 테크놀로지가 소개되고 나서,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전신과 전화 네트워크를 우회하여 그들만의 무선 기기를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윌리엄 아이트론(William Aytron)은 무선을 이용한 장거리 커뮤니케이션을 설명하기 위해 유기적인 은유를 사용하였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그는 무선을 이용하여 네가 어디에 있는냐고 매우 큰 목소리로 그를 부를 것이다. 이 목소리를 들은 친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는 광산에 있어. 상상해 보라 이러한 상황을”(Czitrom, 1982: 85).

신문 산업은 무선을 이용한 점대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신문 소유주들은 만약에 무선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을 거둔다면, 전신의 독점에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륙 횡단간의 전신 전송 요금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선과 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무선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저렴할 것이다. 이러한 저렴한 무선 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하여, 신문들은 효율적으로 경쟁할 것이며 그들의 구독 범위 또한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무선이 신문 소유주들이 상상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생각하였다(Douglas, 1987: xxvi). 1899년 이후 신문들은 무선 전화의 의미를 영웅과 모험의 이미지를 빌어 구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발명한 영웅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Covert & Stevens, 1984: 200-201).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무선 커뮤니케이션은 현재 증대되는 소외와 고립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매체로 까지도 묘사되었다(Douglas, 1987: 26).

그러나, 1920년대에 전파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되면서 새로운 모델의 라디오가 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의 라디오는 기존의 무선 테크놀로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점대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간주되지 않았다. 대신에, 청취자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제공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체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Covert & Stevens, 1984: 210). 대법원의 대법관인 William Taft 또한 라디오 방송을 초자연과 유사하게 보았다. “라디오에 관한 법을 해석함은 하늘의 법칙을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과 비슷하다”(Covert & Stevens, 1984: 3). 라디오로부터 나오는 탈 육화된 목소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일종의 신의 목소리로 비쳐졌다. 1950년의 영화인 *The Next Voice You Hear*에서도 신이 라디오를 통해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있다.

라디오 또한 전신과 전화와 마찬가지로 공동체 의식과 국가 화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 만약에 작은 마을과 도시들이 서로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물리적으로 관계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라디오를 통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친밀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디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다. 라디오는 매우 정교한 거미줄을 만들고 있다. 라디오는 우리들로 하여금 공동 의식을 갖게 할 것이며 같이 생각하고 같이 삶을 영위하게 할 것이다”(Douglas, 1987: 305-306). 이렇게 근대 이후에 나타난 테크놀로지들은 모두가 과거에 꿈꾸었던 이상을 현실화하는 매체로 간주되었다(Fisher, 1992: 224.).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은 매우 민주적으로 비추어 졌으며 기존에는 부자에게만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이제는 모든 이에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Douglas, 1987: 308).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둘러싼 은유들은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발전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가져 올 수 있는 혼란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기능을 하였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종종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왔지만, 그들을 설명하는 은유들은 과학자나 전문가들에게만 친숙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일반인들이 어떠한 주저함이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근대성에 방향을 제공한 것은 바로 유토피아 논의이다. 즉, 근대성이 칸트가 주장한 계몽이라고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그가 실천 이성을 강조하였지만, 그 어떠한 실천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진보 개념의 등장은 근대성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상

향의 논의를 공간의 유토피아에서 시간의 유토피아로 전환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 있는 이상향을 그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유토피아 이상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잊게 하고 미래에는 해결 될 것이라는 허위의식 역할을 하였다.

근대의 이상향 논의는 과학적 합리성과 테크놀로지와의 결합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실천성을 갖게 되었다. 과학적 합리성은 약 16세기에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은 사람의 추상적인 이성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한 이상향은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한층 구체화 되었다.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한 꿈의 실천성보다 더 이상 현실적인 논의는 없다. 테크놀로지는 현재화 되어 있으며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불완전한 사람들을 미래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바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진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테크놀로지와 유토피아 논의의 결합은 기술 결정론을 낳게 되면서 기술과 사회를 동일한 차원에서 고려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헐어 버린 전신의 출현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외감과 사회에 대한 유기체 모델과 결합하면서 당시의 사회 질병들을 해결할 수 매체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인식론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현재 회자되고 있는 초정보고속통신망과 같은 은유가 바로 그것이라 지적할 수 있다.

다. 인터넷에 관한 은유

하나로 혹은 한국통신 그리고 두루넷의 광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메시지는 “눈 깜짝할 사이에”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그들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상기시키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은유는 클린트 정부에서 발생된 이후 여타 나라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으로 교통의 테크놀로지들은 국가, 시장, 그리고 회사들과 같은 제도들의 통제의 범위와 양식을 결정해 왔다. 초

고속정보통신망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사회적 교통의 혁명적인 수단이라고 틀(frames)을 짜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아이디어라 하겠다. 이처럼 동시성을 강조한 네트워크로 전 지구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작업은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이렇게 혁신적인 과정에 정부와 사업가들의 역할을 규정하는데 매우 유용한 은유라고 하겠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은유는 새로운 정보 환경 문제를 규정(problem-setting)하는 틀 짜는 도구(framing device)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Leo Bogart, 1995년 겨울: 169). 자동차들이 두 방향으로 달리는 어느 고속도로와는 달리,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정보 환경에서의 정보 교환은 무한한 접촉 지점으로 인해 다 방향적(multi-directional)이다. 따라서, 이 은유는 무수히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충분히 묘사할 수가 없다. 새로운 정보 환경에서 전개되는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다양한 성격이 바로 고속도로 은유에 내포되어 있는 선형 모델인 “전달자-메시지-수용자”에 의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은유는 바로 단순하고 편평한 2차원의 세계를 뜻한다. 이러한 비교는 정보 교환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형태, 즉 일대다, 다대다 등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Merril Moris & Christine Ogan, 1994년 겨울: 42).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은유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구절이 대중매체의 필요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때때로 은유는 미디어의 단골 메뉴이다. 그것은 아나운서로부터 쉽게 도출되고,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 자신의 소규모의 은유를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는 은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미디어에 나타난다. 이러한 은유가 바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다”(Gozzi, 1994년 가을: 321). 그러나, 이러한 주목에도 불구하고, 이 은유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도입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관 은유는 바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간주된다. 바로 기존의 보편적 서비

스의 틀 –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매체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단지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관에 대한 접근을 보편적 서비스라고 간주–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커뮤니케이션의 질과 내용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의 속도와 양을 강조함으로써 이는 바로 시장에 근거한 상업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은유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은유는 테크놀로지가 산업화가 결합되면서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이 바로 진보라는 등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19세기에서부터 나타난 전자 커뮤니매체들이 어떻게 상징화 되었는지를 알아 보았다. 모든 매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동경해 왔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과학의 지식을 이용하여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나타난 전신, 전화,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나아가 신의 경지에 다가설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회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매체로 묘사하였다. 산업 혁명은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스의 영화에서 신랄하게 보여 주었듯이, 사람들을 커다란 공장의 한 요소로 전락하게 하였다. 즉, 인간 소외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당시 학자들의 중요한 화두였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이질적이고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원자화된 대중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잃어버린 인간애를 새롭게 나타난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 상상하였다. 현재 인터넷은 산업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수행성 차원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기술 유토피아라고 하는 인식론은 새로운 전자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테크놀로지와 디스토피아

테크놀로지가 나타나고 사용되면서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가? 과연 해당 테크놀로지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등의 질문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질문이다. 테크놀로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테크놀로지의 의미와 그것의 사회에 대한 영향이 기존의 사람들의 주체성의 상실을 갖고 온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들은 테크놀로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효과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테크놀로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맑스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논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맑스와 오웰은 테크놀로지를 통한 인간의 노동력 착취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소외를 갖고 온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조지 오웰은 착취의 관행이 지속되면 곧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된다고 하면서 그의 1984년의 동물 농장 소설에서 개인들은 사회적 기계에 의해 지배를 받게되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중요한 기계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디스토피아 논의를 집대성한 학자로서 재크 엘룰(Jacques Ellul)을 들 수 있다. 그는 지금까지 테크놀로지를 논의한 많은 학자들 중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학자로서 테크놀로지의 유토피아를 강조하는 학자들과는 달리 테크놀로지는 지구에 천국(heaven)을 건설하지 않고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천국이 아니라 역으로 강제 수용소와 같은 전체성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들을 규정하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조성된 감옥은 바로 전체주의와 같다. 이는 사회가 테크놀로지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테크놀로지에 의해, 테크놀로지를 위하여, 그리고 테크놀로지를 위해 존재하고 있다.

재크 엘룰은 테크놀로지를 거론할 때, 전체성, 합리성, 효율성, 등의 용어를 종종 사용하였다. 그는 주장하기를,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은 독립적인 합리성, 즉 자체 내의 논리에 의해 작동되는 합리성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합리성의 결말은 삶의 모든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 과학, 탐구, 생산 등 - 들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이성에 의해 이용되는 수단이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방법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집

약적이다. 테크놀로지가 삶의 모든 영역을 심층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사람들, 자연, 과학 행위, 인간성에 대한 견해,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예술과 정치 등이 테크놀로지 논리의 횡포에 의해 재구성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바로 제크 엘룰은 테크니크(technique)와 기술적인 사물(technical objects)을 동일시 하지는 않았다. 비록, 도구, 무기, 자동차, 컴퓨터 등이 기술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산품들이 엘룰에게 있어서는 테크니크의 중심이 되는 의미를 반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테크니크는 독립적인 사회 과정이다. 테크니크는 삶을 합리적이고 단계적으로 절차성의 특징을 갖게 한다. 이러한 테크니크는 공장, 관료제, 연구와 발전을 위한 집단, 도시 계획, 위원회 등에서 지배적으로 관찰된다. 여기서 테크니크는 일종의 생각의 유형(mode of thinking)이라 이해함이 적절하다. 엘룰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테크놀로지보다는 테크놀로지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생각의 유형을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러한 테크니크에 근거한 사고 방식들을 명료하게 확실하게 남들에게 과시한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할 때 그들의 자신감으로 인해 해당 분야를 정복하였다고 하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고 방식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일반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엘룰은 이점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들이 전문가들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신뢰를 부여함에 따라 우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자유와 자신들의 존엄성을 잃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⁹⁾

엘룰에 의하면, 테크니크는 종교이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위상이 고

9) 이러한 입장은 바로 홉스의 입장에서 연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홉스는 사람들의 본성은 매우 이기적이며 단편적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사람들의 본성이 칸트가 주장한 계몽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함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지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횡포에 영향을 받아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결국에는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낳게 된다.

양되었다고 한다. 테크니크는 자율적이며 그 자체가 일종의 법칙이 되었다. “테크니크는 독립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그 자체의 법칙을 복종하는 다양한 세계를 구조화하고 있으며 모든 전통을 무시한다”(Ellul, 1964: 14). 테크니크는 보편성을 갖게 되었으며 그것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인 종교들과 관습들이 테크니크의 위세에 그 영향력을 잃게 되었다. 그는 주장하기를, 서구의 테크니크와 경제의 세속화 등이 전통을 근절하는 근거가 되었다. 대신에 테크니크 논리에 근거한 물질주의의 미덕, 형평성, 근대화, 생산 등의 가치가 대신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현재의 테크니크는 기존의 성스러운 장소를 대체하였다. 신은 더 이상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조작이나 계산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신대신에 우리들은 테크놀로지를 숭배한다. 이러한 숭배가 글자 그대로 종교상의 교리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숭배라 할 수 있다. 인간성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도구적 합리성에 의해 구성된 기술에 의한 물질에 그들의 신념을 투사한다. 즉, 사람들의 천재성이 테크놀로지를 통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권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증기 기관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자부심은 극도에 달했다.

그 어떤 것도 신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테크놀로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이제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성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에, 그들은 과거의 신성함을 붕괴시킨 테크놀로지 자체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있다(Ellul, 1964: 143).

테크니크는 근대 사회로 이행되면서 과거의 모든 신성함을 부정한 근원적인 독특한 개체이다. 이러한 테크니크의 영향력은 신성함이라는 인지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관료제에서도 관찰 할 수가 있다. 끊임없이 진행되는 분업화, 행정의 규칙들, 형태, 그리고 절차 등이 많은 사회 과정을 위한 현대의 권위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관찰된다. 효율성, 접근과 탈출의 속도감, 전문가의 지식들이 관료제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특징들이 학계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테크니크 가치는 특히 현재의 산업계에서도 활발하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갈브레이스(Galbraith)는 현재의 시장은 전혀 자유롭지가 않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자유롭다고 한다면, 이는 정부 혹은 관료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할 것이다. 경쟁이 만연한 시장에서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면 될 수록, 세분화, 자본, 그리고 시장의 조작 등이 더욱 더 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갈브레이스는 테크노 구조(techno-structure)라고 명명하였다(Galbraith, 1967). 이러한 테크노 구조는 예를 들면, 규모의 경제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업 조직의 경영에 커다란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엘룰은 이제는 테크놀로지가 개인화 차원까지 변화되었다고 한다. 요즘 사람들 을 일컬을 때 흔히들 Homo Faber,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는 바로 정보를 공정하는 체계 혹은 복잡한 기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더욱이,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주를 실체를 관장하고 있는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 원인과 효과라는 은유를 사용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들이 환경을 이렇게 기계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때, 우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바로 기계의 효율성으로 대체하게 된다(Ellul, 1964: 257). 사람들을 단지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도구를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고 사용하는 기계적인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회 모든 분야에 테크놀로지의 논리가 만연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엘룰 이외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관적인 사고는 신탁스주의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하버마스는 그의 책인 *Technology and science as ideology*(1969)에서 테크놀로지의 사회에 대한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버마스와 같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인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그의 책인 *일차원적 인간*에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의 준거틀이 테크놀로지의 논리에 따르는 일차원적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칼 맑스와는 달리 노동자들이 테크놀로지를 통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다. 즉, 노동자들이 테크놀로지를 통제함으로써 그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맑스의 주장에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는 “테크놀로지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Habermas, 1969: 7). 요즘 테크놀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도구적 이성 지배를 받게끔 함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더 이

상 주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전환되었다. 심지어 생산 과정의 한 요소가 되었다. 이는 산업 혁명이래로 시작된 자동화 장치의 논리에 그들을 맞추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¹⁰⁾

하버마스는 국가가 경제 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사회에 개입하는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역설한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결합시킴으로써 국가는 경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 결과,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억압의 이데올로기 수단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유토피아의 주장과 같이, 국가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과학과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부자유는 비합리적이기도 않고 전체주의적이지도 않는다. 다만, 여가, 부, 그리고 향상된 지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선다(Habermas, 1969: 53). 그의 견해는 정치가 자신의 고유성을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합리성이라는 가치에 넘김으로서 테크놀로지의 지배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효과에 의해 마비되고 판단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마취 효과는 대중매체 앞에서 여실히 증명된다. TV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들을 마치 사실임 마냥 믿으면서 우리들은 행동하고 있다.

또 하나의 비판론으로서 기독교 전통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니콜라스 베르디예브(Nicholas Berdyaev)는 *The bourgeois mind and other essays*(1934)에서 기독교에서 바라보고 있는 테크놀로지 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상징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매우 현실적이고 단지 현실성만을 강조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고 또한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Berdyaev, 1934: 205).

그는 신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였으며 그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는 그 것들의 연결을 단절시켜 놓았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는 “세상의 모든 삶을 유기적인 관계로부터 조직된 관계로 이행시켰

10) 인간이 산업 혹은 사회 과정의 한 요소로 전락하고 있음을 찰리 체플린의 *Modern Times* 영화에서 관찰할 수 있다.

다. 그럼으로써, 삶이 성장이 아니라 건설의 개념으로 변화가 나타났다”(Berdyaeve, 1934: 210). 이는 새로운 우주 혹은 세상을 창조하게 까지 되었다.

테크놀로지 디스토피아 담론은 유토피아 담론의 낭만적인 견해가 간과하는 면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유용한 대안책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히 두 담론들은 테크놀로지와 그것이 영향을 주는 사회 변화를 매우 기본적으로 제한된 방법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견해들은 테크놀로지와 사람들의 행동을 단순하게 바라보고 있다(Kling, 1996a). 따라서,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들은 공히 기술결정론의 시각을 갖고 기술과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비록, 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든 지 간에 기술결정론은 테크놀로지를 외생적인 요소이며 자발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사회 관계와 조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Williams and Edge, 1996). 테크놀로지는 주어진 것이고 사회와 조직의 변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신뢰할 만한 계기를 제공한다.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알려진 방향과 예정된 경로를 의미하기도 한다(Negroponte, 1995). 이러한 기술결정론 생각은 정부와 산업의 공적 담론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테크놀로지의 변화는 불가피 하고 그들의 속성상 특정한 사회 변화를 촉진시킨다(Edge, 1994). 그러나, 그와 같은 관점에서 결여된 것은 실행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설명할 수가 없으며 예측하거나 바랐던 결과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다(Peltu et al., 1996).

기술 결정론의 단순한 인과 관계 등식은 테크놀로지와 사회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명료하고 매우 매력이 있는 논의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 방법을 정형화하는 현실성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변화의 중요한 요인이다”이며 테크놀로지는 사회의 가치와 신념의 영역을 넘어선다(Webster, 1995: 219). 이러한 견해는 테크놀로지와 그것이 내재하고 있는 사회의 관계를 유리시킴으로서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함으로써 실체를 호도하고 있다. 또한, 요즘 정보 사회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 수의 증가, 웹브라우저의 증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증가 등과 같은 테크놀로지의 양적인 증가가

질적으로 다른 사회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주장이다(Lyon, 1988; Webster, 1995). 이렇게 테크놀로지와 사회를 분리시킴을 전제로 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 등은 단지 기술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그 이외의 모든 요소들을 종속변인으로 간주함으로써 과연 테크놀로지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이유로 다음 장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기 위해 논의되고 있는 기술 결정론과 사회구성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 3 장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에 대한 논의

우리들이 테크놀로지로 부르는 것들은 우리들의 세계에서 질서를 수립하는 일종의 방법이다.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많은 기술적인 장치들은 사람들의 행위에 질서를 부여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가져온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사회는 사람들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테크놀로지의 구조를 선택한다. 이렇게 다양한 선택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의미가 고착되어 애초의 다양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테크놀로지 발전은 오랜 기간 동안 실행됨으로서 공공질서에 영향을 주는 입법 행위 혹은 정치적인 행위와 유사하다. 기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은 어떠한 논리로 변화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기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술결정론, 사회구성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제 1 절 기술결정론과 사회구성론의 한계

1. 기술결정론 논의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처음으로 논의한 것은 바로 기술결정론이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이 자체의 고유한 발전 논리, 즉 효율성이 극대화된 공학적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시간과 공간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경로를 밟게 된다. 이는 사회구조는 기술의 논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기술발전의 속도를 조절할 뿐이다. 이렇게 사회 변화는 오로지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기술결정론은 기술의 중립성과 기술 중심적인 사고가 중요한 특징이다. 기술은 사회와 무관하게 중립적으로 발전하며 특정한 집단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

든 사회 집단에게 공동의 선이 된다. 테크놀로지가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인인 테크놀로지의 가치가 사람들의 필요성과 사회의 이익에 앞선다.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과학적인 지식의 산물이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은 사회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의 가치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성을 갖게 된다.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은 사회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 현상을 관찰함으로써 보편적인 법칙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HugBijker, F., Wiebe E., & John Law, 1994). 테크놀로지 발전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광범하게 제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들은 경제적인 요구들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 목적들이 혁신의 과정에 내재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들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 믿음의 체계를 일컫는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 어느 특정한 사회 조직의 가치관의 일부를 내포하고 있다.

핀버그(Feenberg, 1991)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의 중립성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그는 효율성을 예를 들면서 기술적인 합리성의 문화에 입각한 해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효율성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노력의 최소한의 낭비이다. 효율성은 테크놀로지 발달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이유이다. 효율성은 대체적으로 투입과 산출의 비율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효율성은 어느 장소 어느 시대에도 통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투입과 산출물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바로 지역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질과 사람 자원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사막에서의 개관 사업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관 사업의 경우 물의 사용량은 매우 다를 것이다. 이를 고려할 경우, 효율성이 있다고 함은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상황 변수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효율성은 바로 지역적으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효율성 논의에 있어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효율성은 보편적인 측정 방법이 아니다. 또한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과학 지식은 필

연적으로 어느 모로 보나 중립적일 수가 없다.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특수한 문화적 맥락과 지연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위너는 테크놀로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몽유병과 같은 입장을 반대하면서 에룰(Ellul)에 의해 제기되고 발전된 기술결정론을 다소 변경하여 연성 결정주의(soft determinism)를 제시하였다(Langdon, 1986: 5). 위너의 입장은 테크놀로지의 생성과 사용을 구분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비록 과학자에 의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지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사회의 윤리에 의해 제기된다. 즉, 테크놀로지 자체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가는 해당 사회에 의해 결정되며 이로 인해 사회에 영향을 준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비록 기술 결정론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결정론 시대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 정보 사회라는 용어가 사회를 명명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아직도 한 사회를 지배적인 테크놀로지가 특징을 짓고 있음을 관찰할 때 여전히 기술 결정론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술 결정론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 바이커(Wiebe Bijker)는 사회 구성론을 주장하였다. 테크놀로지는 관련되는 사회 집단(relevant social groups)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에서 구성된다. 바이커는 관련되는 사회 집단은 바로 주어진 테크놀로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회에 적합하게 되며 우리들의 삶의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해석하는 집단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술 결정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기술을 사회와 유리시켜서 논의하는데 있다. 어떠한 기술도 진공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2. 사회 구성론 논의

사회 구성론의 특징은 기호학을 인용하여 테크놀로지가 사회에서 정착되는 과정을 설명한데 있다. 바이커는 사회와 테크놀로지의 관계를 중재하는 기체로서 상징(symbol)을 도입하였다.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에서는 해당 테크놀로지에 끊임없이 상징을 부여한다. 언어와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의미의 기원을 찾는 기호학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테크놀로지에 부여된 상징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공시적·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떠한 기호가 어떠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구성론은 테크놀로지를 해석 가능한 인조물(interpretable artifact)로 간주하였다. 기호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받아들여져 소위 관례적인 코드(conventional codes)가 부여되게 되면 그것의 의미는 안정적이 된다. 이러한 전통은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기호의 논리와 같이 테크놀로지도 해당 사회에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일치되면, 그 의미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 집단들과는 무관한 실제로 받아들여진다. 객관적 사실이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암흑의 상자(black box)가 된다. 따라서, 사회 구성론은 이러한 암흑의 상자를 해체하는 것이 분석의 출발점이다. 관련된 사회집단들의 해당 테크놀로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테크놀로지 틀(technological frames)이 된다. “테크놀로지 틀은 관련된 사회 집단들 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 한다. 이렇게, 이는 한 개인의 특성도 아니고 또한 체계 혹은 제도의 특징도 아니다. 테크놀로지 틀은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한다”(Bijker, 1995: 123). 이는 해당 테크놀로지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이커는 이를 유연한 해석(flexible interpretation)이라 일컬었다. 이러한 유연한 해석은 안정(stabilization)과 종결(closure)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테크놀로지로 다가 온다. 안정과 종결은 바로 제도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해당 테크놀로지에 대한 해석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객관적인 실제로 다가서는 것은 일련의 규칙과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미가 고착화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는 질서를 창조하고 특수한 가치를 내재하게 된다. 결국, 테크놀로지는 객관적인 실체의 모습을 띠게 된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되는 상징은 기술의 객관적 성격과 사회의 주관적인 판단과는 독립된 현실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물상화된 상징은 다시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때에, 과연 상징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상징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는 기술의 어떠한 특성을 의미하며, 둘째, 어떠한 행위를 요구(requires certain performance)하게 된다. 클리포드 거츠(Clifford Geertz, 1973)는 모든 상징은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상징은 현실을 표현하는 일종의 모델(model of reality)이며 현실을 위한 모델(model for reality)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신부들의 예복의 하얀 색은 신부의 순수성을 나타내며 한편으로는 모든 여성들에게 순수한 신부가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징은 표현성과 처방성이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갖고 있다. 표현성과 처방성은 바로 해당 사회의 가치관에서 비롯 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해당 테크놀로지를 의미하게 되었는가를 밝히는 일이 사회 구성론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3. 사회 구성론의 한계

가. 사회 구조의 제약성

사회 구성론자들은 기존의 기술철학자들을 언급할 때 종종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그래요, 참으로 위대한 사상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틀렸고 우리가 옳아요”(랜던 위너, 1999: 295). 이들은 그들과 다른 접근법을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생명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 구성론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어떠한 결점을 갖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사회 구성론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관련이 있는 사회집단(relevant social groups)이다. 이는 바로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정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사회 구성론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Bijker, 1995: 281). 바이커는 행위자들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느 곳에서도 유리한 혹은 영향력 있는 집단이 없다. 심지어 엔지니어, 관리인, 혹은 정책 결정가 또한 유력하지가 않다.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테크놀로지(sociotechnology) 구성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테크놀로지에 관한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며 이러한 상징들은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들의 궤도(trajjectory)에 다시 영향을 미친다. 과연 사회에서의 정치가 그것을 의미하는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된다. 매우 자유스럽고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행위자(agency) 주변에는 항상 제도와 규제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바이커는 간과하고 있다.

바이커는 행위자와 구조간의 균형을 언급하고 있다(Bijker, 1995: 281). 그러나, 그의 문제점은 구조와 행위자의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이다. 행위자와 구조에 있어서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그는 사회 기술적인 권력 장치(sociotechnical power coin)와 권력의 미시 정치(micropolitics of power)의 개념들을 통해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두 개념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미시적인 차원의 정치는 어느 특정한 기호학적인 구조를 가져오며, 기호학적인 영향력(power)은 다시 미시적인 차원의 정치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Bijker, 1995: 264). 그러나 바이커의 구조와 행위의 분석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제도의 규제적인 면과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political resources)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서 구조와 행위자간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해 랑돈 위너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어느 집단이 관련되어 있는 집단이며 사회적인 이익은 무엇이며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제외된 집단들은 어떻게 해서 제외되었는가? 이전에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선택들을 어떻게 사회 구성론은 다룰 것인가? 즉, 왜 논의가 되지 않은 것인지? 또한 결정되지 않은 것과 의제도 되지 못한 사항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Langdon, 1991: 511).

나. 테크놀로지의 물리성과 행위자와의 관계

사회 구성론은 기술의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과 행위자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사람들이 기술에 어떠한 상징을 부여하게 되면 그 상징은 사람들과 해당 기술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해당 기술에 어떠한 상징을 부여할 때에 영향을 주는 기제는 바로 해당 사회의 구조의 특성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객관적인 특징과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사회 구조와 개인들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해석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변수로

는 시간의 변수가 있다. 앞에서는 공간에서의 행위의 역학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시간의 변수가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론에서는 기술에 대한 해석을 일방적으로 간주하였다.

환언하면, 사회의 관련된 집단들의 다양한 해석들중에서 어느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짐을 종료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기술과 사회의 관계는 시간의 변수를 고려할 경우 일방적이지 아니라 순환적(recursive)임을 알 수가 있다. 해당 기술에 부여된 상징들은 다시 행위자들과 사회 구조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고 다시 나타난 상징은 기술에 영향을 준다. 사회 구성론은 이전의 논의와는 달리 기술 혁신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 방향적이고 복잡한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해석은 기술의 역사에 있어서 필연성의 힘보다는 우연성과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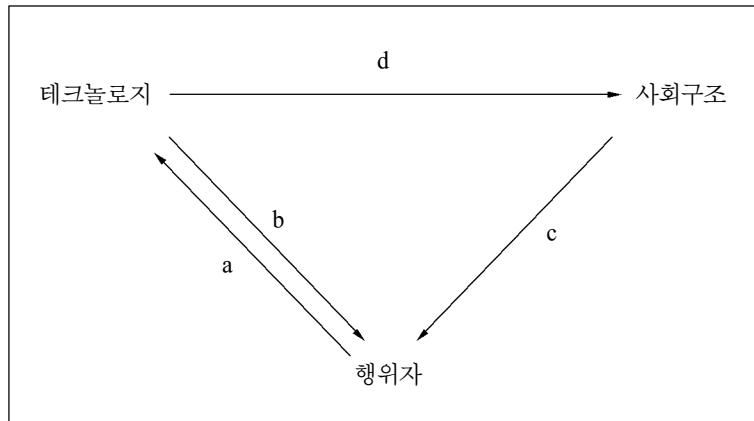
4. 울리코브스키의 구조 모델과 테크놀로지의 소멸

가. 울리코브스키의 구조 모델

사회 구성론의 결점을 보완하고자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적용한 울리코브스키(Orlikowski)의 연구는 주목할만하다. 그녀의 모델은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술결정론과 사회 구성론을 분리한점을 경고하면서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빌어 설명하고자 하였다. 구조화 이론에 비추어서 그녀는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성론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화살표 a는 행위자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해석을 뜻하며, 화살표 b는 해석으로 인해 나타나는 테크놀로지의 객관적인 특징이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영향은 행위자들에게 해당 테크놀로지를 갖고 무엇을 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 화살표 c는 행위자들이 해당 테크놀로지를 해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 영향을 주는 사회 구조이다. 화살표 d는 행위자들이 해당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사회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1〕 올리코브스키의 테크놀로지의 구조 모델



그녀의 분석은 조직에서 어떻게 해당 기술이 사용되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조직은 사회와는 달리 사용자들이 어떻게 기술을 사용해야 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 예측성이 사회에 비해 높다. 반면에 사회에서는 기술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 어떠한 기술이 나타나고, 확산되고, 발전되고, 그리고 소멸될 것인지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사회 구성론에서 설명하고 있지 못한 관련된 집단들의 역할 관계와 테크놀로지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비록, 사회 구성론에서 주장하듯이 기술을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객관적 논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즉,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사회에서 구성될 수 있지만 기술 자체 논리를 벗어난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전화망의 변화에서 볼 수 있다.

그녀의 또 하나의 기여는 기술의 이중성을 강조하였다. 기술의 이중성은 기존의 기술에 대한 논의들을 비판하면서 나타났다. 기존의 기술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술은 객관적인 힘(objective force)을 갖고 있어 사회 변화에 중요한 독립변인이라는 인식과 기술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에서 구성된 산출물이라는 이원적인 사고이다. 그녀는 기술은 양자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이

라 함은 주어진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물질적으로 구성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해당 기술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기술이 일단 발전되고 확산되고 정착되게 되면 해당 기술은 물상화되고 제도화됨으로서 최초의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행위자들과는 무관하게 보인다. 즉, 일종의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Orlikowski, 1992, 400).

그러나, 비록, 그녀의 분석이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을 빌어 기존의 기술결정론과 사회 구성론을 통합하고자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다. 앞서서도 제시하였듯이, 테크놀로지와 여타 변수들 - 행위자와 사회 구조 - 의 상호작용은 일회성이 아니다. 그녀의 분석은 조직에서 해당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조직의 목적과 제도적 장치는 사회의 그것들에 비해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올리코브스키의 모델에 시간이라는 변수를 고려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테크놀로지는 사회에 정착되면서 우리들의 인지/지각 활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만약에 현미경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미생물들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인가? 만약에 지하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지하에서의 사람들의 활동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 마지막으로 전기불의 출현으로 사람들의 밤에 대한 인지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테크놀로지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간의 관계 망 속에서 살펴보았을 때,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독립변인 혹은 사회 제반 요소들 중의 하나라고 치부하기에는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다.

나. 테크놀로지의 소멸

우리들은 테크놀로지를 어느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의 테크놀로지는 종종 기계적이고, 독립적이고 사회와는 유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테크놀로지를 사회와 생물학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치부한다. 기계적 이라기보다는 테크놀로지는 유기적인 존재이다. 테크놀로지는 사회, 물리적, 그리고 심리적인 존재들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테크놀로지들은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 내재되면서 그들의 객관적인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담론들이 진행되면서 테크놀로지에 대해 매우 재미있는 일이 발생된다. 우리들이 테크놀로지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그들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배경이 된다. 이러한 점이 바로 맥루한이 제시한 테크놀로지의 배경(background)과 전경(figure)과 깊은 관계가 있다. 우리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테크놀로지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화를 생각하자. 전화가 사용되면서, 처음에는 매우 신기한 사물로서 여겨졌으며 그리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전화가 널리 사용되면서 사람들에게는 전화의 사용이 신기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처럼 되었다. 결론적으로, 전화가 이제는 일상 용품이 되면서 일상적인 행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전화를 이용하여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가 아니라 나의 친구하고 - 전화가 사람들 간의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감정 혹은 전화를 이용 하였다 라는 언급이 없이- 오늘 이야기 하였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담론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우리들의 삶에 첨부된(technology as an addition to life) 것에서 테크놀로지를 통해 삶을 바라보게 된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양식에 테크놀로지가 내재화되면서 테크놀로지의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된다. 즉, 테크놀로지가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 될 수록 그것은 더 이상 테크놀로지라 보이지가 않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돈 아이드(Don Ihde)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글쓰기는 이제 더 이상 테크놀로지라 간주되고 있지 않다. 대신에 글쓰기의 새로운 형태가 테크놀로지라 간주된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였던 각종의 글을 쓰는데 필요한 도구들은 그리 친밀하지 않은 것에서 친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변화해 왔다. 예를 들면, 워드 프로세싱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새로운 테크놀로지였는데 이제는 일상 용품이 되고 있다. 내재화된 테크놀로지의 함의는 바로 우리들이 테크놀로지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글자를 읽고 쓴다는 행위(literacy)는 단순히 문장을 읽고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행위(reading)”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가? 혹은 테크놀로지가 우리들을 이용하는가? 아이드(1990)는 이 모두를 부정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에 의해 짜여진 체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 테크놀로지의 관계는 감각적이며 맥락적이다. 운동에 근거한 지각은(kinesthetic perception) 항상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테크놀로지가 우리들 몸이 테크놀로지라는 인조물을 통하여 연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이드에 의하면, 테크놀로지는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는 인조물이라고 있다. 라투어(Latour, 1988)의 용어에 의하면, 테크놀로지는 사회 체계에서 행위자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가 사회 제반 세력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여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한다(Bromley, 1997; Latour, 1988; Law, 1991). 이러한 입장이 우리로 하여금 테크놀로지가 사람, 그리고 자연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가 있다. 대부분의 테크놀로지들은 일상생활에 침윤함으로서 사라지게 된다. 즉, 그들은 더 이상 테크놀로지라 보이지가 않으며 일상적인 것으로 화한다.

제 4 장 테크놀로지와 사람, 사회, 그리고 환경과의 변증법적 관계

제 1 절 환경 조직의 형태로서의 테크놀로지

현재 우리들은 테크놀로지의 기능보다는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흔히들, 테크놀로지라고 할 때에 우리들이 열거하는 것들은 바로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이동전화 등과 같은 물질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들이 테크놀로지의 일상적인 예들이다. 정말로 테크놀로지는 어떠한 대상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무엇을 이야기 하는 건지? 등의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비록, 다소 이견은 있지만,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사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동의할 하고 있다. 프랭클린에 의하면, “테크놀로지는 집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다”(Franklin, 1989.) 테크놀로지는 사물들을 공급하는데, 사람들은 해당 사물들을 중심으로 삶에 질서를 부여한다. 또한 그러한 사물들이 우리들의 지각을 바꾸기도 한다. 테크놀로지는 그것들의 부분의 합 이상인 일종의 체계이다.

그렇다면 과연 테크놀로지는 무엇인가? 다린 바니(Barney, 2000: 27)는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해의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매우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다. 해당 용어의 어원을 살펴보는 작업은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테크놀로지는 그리스의 두 단어인 테크네(Techne)와 로고스(Logos)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테크네는 “유용한 예술(useful arts)”이다. 이는 우리들이 테크놀로지라고 보는 사물들을 생산하는 직업과 영역을 일컫는다. 반면에 로고스는 테크네를 동반하는 이성적인 담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를 선의 윤리와 정치

적인 삶의 맥락에서 자세하게 밝혔다. 그는 말하기를 테크네는 어떠한 사물들을 그것의 자연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형시키는 것이라 하였다.

앞에서의 테크놀로지와 사회 관계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또한 테크놀로지가 단순한 물질 이외의 그 무엇이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와의 관계속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그리 생산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테크놀로지와 사회를 동일선상에 있는 서로 독립적인 개체로 간주하여 테크놀로지를 분석하는 것은 곧 앞에서 논의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에서 보여 준 테크놀로지를 사람으로부터 탈육화 시킴으로서 진정한 테크놀로지의 의미를 알 수가 없게 한다. 그 이유는 비록 사회와 테크놀로지가 별개의 개체로 보일 수는 있지만, 사회는 테크놀로지와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며 테크놀로지 또한 사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를 이해하고자 할 때,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물질성, 인조성, 그리고 도구구성이라는 테크놀로지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분석은 의미가 없다. 이는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즉, 테크놀로지와 사회, 사회 제반 요소들의 관계의 역학 등에 의해 해당 테크놀로지가 형성,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관계속에서 테크놀로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

인간의 역사는 테크놀로지의 역사로 간주하여도 무방하다. 과연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기술적(technical) 인가?’와 ‘기술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로 귀착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고전적인 철학 교리에서는 테크놀로지를 첫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둘째, 사람들의 행동 범주로 정의하고 있다(Heidegger, 1993). 이렇게 기술적인 것에 대한 두 정의는 바로 테크놀로지를 도구와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바라 봄을 의미한다. 두 정의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에 대한 해답은 주고 있지 않다. 테크놀로지의 실체가 무엇인가? 즉, 과연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의 행동을 위한 단순한 도구인가? 혹은

독립적인 지위가 있는 실체인가?

다음의 몇가지 질문을 시작으로 테크놀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테크놀로지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테크놀로지는 나타났는가?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테크놀로지는 아마도 단순히 사람들의 행위를 위한 도구적인 지위였을 것이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테크놀로지를 나타내는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최초이며 자연스럽고 그리고 도구적인 테크놀로지는 바로 그들의 몸이다. 이러한 면에서,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인 욕구에 관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도구로서의 사물은 사람 몸의 연장이다. 비록,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들을 “불완전한 존재(deficient being)”라고 간주하면서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의 불완전성을 상쇄하기 위한 감각의 투사(organ projection)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테크놀로지를 단지 대체 기능으로 간주하는 기능적인 시각이다(Waldenfels, 1995: 106).

게다가, 사람들은 몸뿐만 아니라 정신을 갖고 있다. 이는 사람들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욕구가 있지 않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가 충족되면 이후에는 규범적이고 문화적인 욕구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매우 복잡한 도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람들의 본래의 행동적인 유형을 벗어날 수가 있었다. “더욱이, 어떠한 테크놀로지 체계에 의한 산출물이 어쨌든간에, 우리들에게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산출물 혹은 기능이 몸의 경험과 감각 수준으로 전환되어야 한다”(Rapp, 1999: 47). 테크놀로지를 규범적인 준거들의 맥락에서 고려하면, 어떤 테크놀로지는 현재의 상태(state-in-presence)로부터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Heidegger, 1993).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재의 상태에 있는 테크놀로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 예를 들면, 세계내의 사물들은 present-at-hand의 상태에 있다. 즉 세계가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in order to do something) 어떠한 사물을 이용하게 되면서(ready-to-hand) 그들은 바로 세계와 관련(engagement with)을 맺게 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워드 프로세서를 접한다는

것은 워드프로세서를 단순한 사물로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접하게 된다. 이렇게, 현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수단과 목적의 의미를 넘어섰다. 잠재성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들은 또 다른 세계를 접하게 된다.

이제는 테크놀로지와 사람을 분리할 수 없다. 현대의 테크놀로지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갖고 왔다. 더욱이, 우리들의 내부 의식에도 변화를 갖고 왔다. 첫 번째의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혁신을 찾기 위한 방법론적으로 계획된 과정과 관련된 변화이다. 이는 바로 혁신을 위한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그와 같은 태도는 결코 명백하지는 않다. 자연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갈릴레오와 뉴턴의 연구와 더불어 데카르트의 철학적 방법론에 의해 나타났다. 그들의 영향이 바로 17세기 초의 서구 유럽의 지침서가 되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러한 변화는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데 새로운 방법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반면에, 테크놀로지는 바람, 물, 그리고 동물의 힘을 변화시켰고 또한 그것들을 저장하고 증가시켰다.

반면에, 테크놀로지는 새로운 자연적인 과정을 창조하였다. 즉, 핵에너지 혹은 유전자 변환 등 수단이 목적이 되는 과정에 따른 변화의 결과로서 현재의 테크놀로지는 우리들의 욕구를 결정한다. 게다가,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단들은 잠재적으로 실질적으로 무한한 기술 체계이다. 마법의 원이 형성되었다. 즉, 무한한 수단이 무한한 욕구를 만들고 무한한 욕구가 무한한 수단을 만든다. 이렇게, 단순히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를 간주하는 도구적 정의는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또한 불안정한 사람으로서의 신화가 아니라 이제는 충분함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테크놀로지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감각의 대체가 아니라 조직의 형태(mode of organization)이다.

테크놀로지가 사회에서 형성되고 정착되어 사용되는 과정에는 사회구성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사회의 정치적인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구성의 접근 방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Bijker, 1995). 왜냐하면 이는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지할 수가 없기 때문

이다. 바이커의 최근의 연구는 사회 형성론과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통합하여 소위 “사회기술적 전체 효과(sociotechnical ensembles)”라는 용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생산되고 사람들이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인지하며, 사람들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며, 그들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는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는 객관적인 실체를 갖고 있으며 자발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역으로 사회 세력들이 테크놀로지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는 앞의 논의와 같이 일방형적인 관계가 아니다. 마뉴엘 카스텔이 주장한 바와 같이,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회의 특징을 내재화 한다. 또한 사회 혹은 테크놀로지가 독립변인이 아니다. 그들의 관계는 변증법적인 관계이다(Castell, 1996: 5). 맥루한의 주장과 같이 우리들은 테크놀로지 형성에 영향을 주며 또한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McLuhan, 1964).

제 2 절 하이데거의 테크놀로지관¹¹⁾

그렇다면 테크놀로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만약에 테크놀로지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고안되었다면, 과연 사람들의 필요와 가치는 무엇인가? 또한 테크놀로지와 사람들과의 관계의 진정성은 무엇인가? 비록 우리들이 테크놀로지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도구, 기계 혹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지만, 테크놀로지는 현재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테크놀로지는 일종의 환경으로 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가 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듯이 우리들 또한 테크놀로지 속에 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의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상학적인 차원에서 테크놀로

11) 하이데거의 테크놀로지관은 그의 주 저서인 *The Questions Concerning Technology* 를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지의 정체성을 논의한 하이데거의 테크놀로지관은 나름대로 우리들에게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어 그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논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과거의 몇몇 철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들은 테크놀로지를 기능성과 응용된 과학으로 이해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테크놀로지는 바로 세계(the world)를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은 테크네를 의미한다. 테크네는 고대 그리스어의 의미로서 장인과 예술의 기능(skillfulness)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이것은 로고스를 의미한다. 로고스는 그와 같은 실천 행위를 위한 근거에 대한 전제를 의미한다. 즉 이는 바로 세계의 근본의 원천적인 이론이라 할 수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최고의 이성적 존재로 여기는 서구의 근대성은 인간이 자연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제시하고 표상할 수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더 이상 자연을 근원적 인간존재를 드러내는 지평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제작하고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비판한다.¹²⁾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이용과 지배의 관계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인간의 존재에 영향을 주는 자연을 대상화했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시작된 이래 이성은 자연에서 생성되고 자연과 함께 변형되고 또한 자연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으로 바뀌었으며 이 과정에서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한 이해로서의 해석학적 삶의 영역은 사라지고 과학과 기술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자연은 이제 근대적 과학기술에 의해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되면서 그 의미가 점점 축소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서구의 근대성은 이처럼 도구적 이성에 의한 합리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존재의 참된 근원으로서의 자연을 의미하는 개념이 피시스(physis) 인데, 이 용어는 스스로 움직이고 창작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포이시스(poiesis), 그리고 포이에

12) 自然의 한자 의미를 보면 스스로 그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대 사상가들이나 동양에서도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연이다.

시스적 의미에서의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네(techne)와 함께 테크놀로지를 이해함이 바람직하다. 푸시스란 말에는 스스로 열려 펼쳐지고 스스로 밝혀 드러내는 존재자로서의 자연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푸시스적 존재란 스스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존재, 다시 말해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또다시 감춤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감춤과 드러남의 존재론적 연관은 간직함과 숨김이란 인식론적 역동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를 하이데거는 알레테이아(aletheia), 곧 진리의 역동성이라 부른다. 이 말은 진리는 감춤의 근거위에서 매순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스스로 감추고 드러내는 존재는 근원적 의미에서 푸시스이고 푸시스는 곧 알레테이아 혹은 비은폐성이란 것이다. 하이데거는 자연을 비세계로 바꾸고 진리를 자신의 뜻에 맞추어 조작하고자 하는 근대성은 스스로 드러내는 섭리로서의 창조적인 자연(즉, 푸시스)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보았다.

스스로 솟아오르고 밖으로 끌어내는 존재인 푸시스는 그 본질적 특성에서 포이에시스라고 하이데거는 해석한다. 포이에시스는 스스로 창조하는 자연, 즉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무엇이 있도록 해주는 자연의 속성을 이르는 말이다. 다시말해 푸시스의 가장 높은 의미로 하이데거는 포이에시스를 말하고 있다. 포이에시스로서의 푸시스에 대한 하이데거의 이해는 그의 예술론과 기술론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술(특히 시)은 자연에 대한 원초적 체험을 담고 있다고 하이데거는 보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테크네로 보았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면 예술은 더 이상 자연에 대한 근원적 체험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에 대한 단순한 지식체계로서의 미학으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테크네를 근대의 기술로 이해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하이데거는 이를 테크네의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데, 테크네의 본래의 의미는 진리를 빛나는 곳으로 끄집어낸다는 의미에서 탈은폐라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흔히 제작행위, 조작행위, 수단의 사용으로 오해되는 테크네는 원래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알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이데거는 주장하는데, 이는 테크네가 인식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테크네는 에피스테메(episteme)와 함께 옛날부터 플라톤 시대까지 인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테크네의 본래의 의미를 인식에서 찾고 있으며 인식이란 것은 하나의 해명, 즉 탈은폐란 논리를 취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이데거는 탈은폐의 한 방식으로서의 테크네는 비은폐, 즉 알레테이아가 생성하는 곳에 본원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에게 쾰시스, 포이에시스, 테크네란 개념들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그 연관 관계는 존재의 진리 영역을 구축하는데 모아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테크놀로지도 탈은폐의 한 방식으로 존재론적 진리의 영역에 본원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하이데거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에 따르면, 현대 테크놀로지도 하나의 탈은폐임에는 틀림없으나 현대 테크놀로지를 지배하는 탈은폐는 포이에시스적 의미에서 밖으로 드러내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볼 때, 현재 기술은 자연을 스스로 발현하는 존재자로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 탈은폐를 강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자연은 이제 인간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고 통제하는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맺었던 본질적 존재 연관은 상실되었다고 하이데거는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원래 포이에시스적 의미의 테크네가 도구적-인간학적 기술로 왜곡되었다고 보는 하이데거의 근대적 과학기술 비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그의 서구성 비판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제 3 절 테크놀로지와 인식론의 관계

하이데거가 이야기 한 포이에시, 테크네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이데거에 의하면 자연이 자신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는 사람들이 자연에 은폐되어 있는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 이해해도 무리가 아니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연

지식이라 함은 무엇인가? 지식은 바로 외부의 세계가 우리들의 인지 능력에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난다. 즉 지식은 바로 사람과 외부 세계의 조우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우 과정에서 테크놀로지가 개입된다. 테크놀로지는 우리들의 지식을 현시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책은 우리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구체화 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인식론 논의에서 역사이래로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다. 과연 사람들은 몸으로 혹은 자신들의 정신으로 지식을 얻게 되는가? 이러한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테크놀로지를 조망함이 바로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하이데거의 철학적 논의를 구체적인 차원으로 끌어내어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리면 그의 논의를 탈은폐시킬 수가 있다고 간주한다. 중요한 사항은 지식은 어떠한 물질적 동반없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며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연구나 조사들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그들을 설득할 수가 있을까? 해당 연구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는 바로 논리, 합리성,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다. 비록 논리가 있으며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연구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언어 혹은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없다면 무슨 소용있는가? 따라서, 논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바로 어떠한 지적인 활동의 필요한 요소이다(Levinson, 1988: 1). 이 중에서 우리들은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테크놀로지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사람들의 인지 능력은 어떻게 발전할 수가 있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대답으로서 도널드 캠프벨(Donald Campbell)의 진화론적 인식론(evolutionary epistemology)을 들 수 있다. 그는 생물의 발전 과정이 새로운 기관을 생성시키며, 적응하지 못하는 기관을 제거하며 생존한 기관들을 확산시키는 3단계의 과정을 거치듯이 지식 또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축적된다고 주장하였다(Campbell, 1974: 139-161). 즉,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고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걸러지며,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은 교육이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확산된다. 사람들의 인지는 우리들에게 환경에서 적응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지 체계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의 존재는 무색하게 된다.

진화론적 인식론이 철학의 기본 화두인 우리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아는가(how we come to know about the world)라고 하는 질문에 잠정적인 대답을 제공한다. 우리들은 세상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역사 이래로 축적하여 왔다. 이는 바로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이다. 물론 진화론적 적응이 반드시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의 인식론의 두가지 논의 – 주관적인 관점 혹은 이상적인 관점과 경험적인 관점 – 에 대안으로서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사람들의 인식과 지각과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상적인 관점과 세상이 우리들에게 인식된 것이외에는 우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험적인 관점이 있다. 그러나, 환경이 우리들의 인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들의 인지 체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독립된 환경이 존재하여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개인들의 지각을 벗어나 지식들의 세대간의 전승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바로 진화론적 인식론이 해결책을 주고 있다. 진화론적 인식론은 사람들의 마음과는 별개의 환경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이상론자들과는 달리) 역사 이래로 전승되거나 유전자적으로 발생된 정신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환언하면, 진화론적인 인식론은 바로 독립된 사람들의 인지 체계와 독립된 환경의 존재가 전제가 된다.

독립된 환경과 독립된 인지 체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은 지식을 만들고 전승하고 축적해 간다고 하는 주장이 진화론적 인식론의 요체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경과 사람들의 인지 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모호하다. 바로 두 독립된 개체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테크놀로지가 개입된다. 앞에서 사람의 인지 체계가 환경을 인지하고 인지된 틀에서 당시에 증명되지 않은 지식만이 전승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식은 어떠한 형

태로 나타나는가? 여기에 바로 테크놀로지의 역할이 있다. 즉,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구체화 한다. 이는 고대 그리스와 하이데거의 논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즉, 자연의 진리를 밝히는 것이 바로 테크네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환경에 투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투영된 지식은 사람들의 환경 모든 구석까지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한 틀에 맞추어 환경을 디자인한다(Levinson, 1988: 12).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테크놀로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구체화하지 않는다면 환경은 그저 변하지 않은 상태로/인지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이 논의는 돈 아이드(Don Ihde)에 의해서 논의된 테크놀로지와 사람의 관계의 논의와 일맥상통한다. 아이드는 그의 책인 *Technology and lifeworld*(1990)에서 “사람의 몸을 통한 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과 “테크놀로지가 매개된 경험”의 차이(Ihde, 1990: 15)를 제시하면서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도구성의 논의는 바로 데카르트적인 주관적인 편향의 결과물이다. 즉, 자아 혹은 주체가 밖의 세계의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도구가 주체성의 지위를 변화시킨다면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과연 누가 주체인가? 주체와 객체를 명료하게 구분하는 것은 이미 부정되고 있다. “테크놀로지는 사람의 행위내에서 인조물과 사용자의 공생관계를 유지한다”(Ihde, 1990: 73). 사람들과 세계(the world)의 물질적인 관계는 분리되어 있고 도구적인 것이 아니라 공생의 중개되는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존 듀이는 주체와 객체 등의 구분을 상쇄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실천의 철학(a philosophy of praxis)을 들고 있다(Dewey, 1916; 1925). 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또한 자신들의 욕구에 맞추어 환경을 변화시킨다. 즉 그는 사람들이 환경내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의미있는 행위를 하는 것 모두를 테크놀로지로 이해하였다. 이를 그는 테크놀로지를 통한 실천 행위로 간주하였다. 결국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의 실천 행위라 정의내릴 수가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해, 사람들은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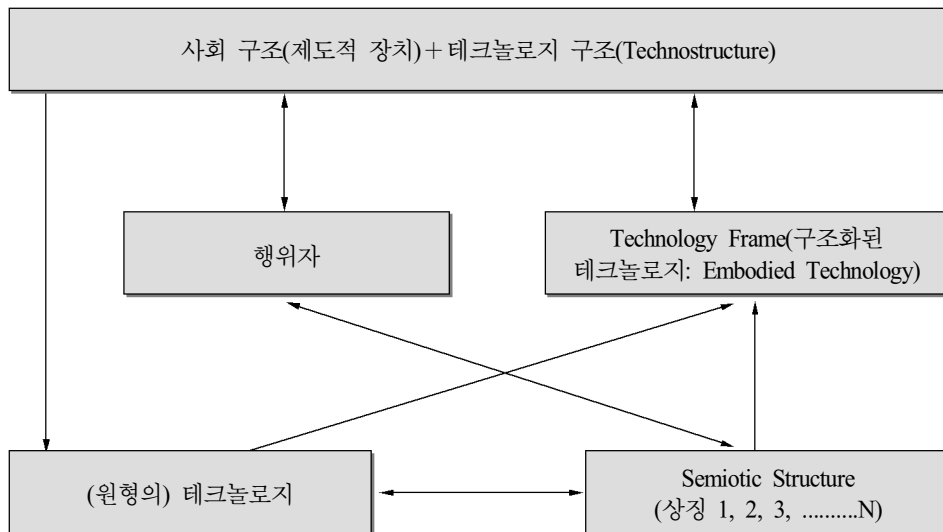
재하고 있는 환경을 창조하고 전승하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간다. 예를 들면, 세가지 종류의 실체 혹은 사물이 있다고 하자. 즉, 나무, 그리고 우리들이 이 나무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생각, 그리고 종이 한 장의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자. 앞의 두 개체는 물질과 생각이라는 이분법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 한 장은 어디에 위치시킬 수가 있을까? 나무는 일종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이며 생각은 구체화가 결여된 생각이다. 즉 비록 머리에서는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것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현시화되기 전까지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종이 한 장은 바로 생각과 물질적인 존재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즉 나무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의 물질화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이는 생각이 깃든 물질(ideated material)이며 물질화된 생각(materialized idea)이다.

사람들이 나무라고 하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근거하여 재배치된다. 또한, 나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물질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이것이 바로 테크놀로지의 변증법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는 인지 체계와 물질의 상호 작용이 없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사람의 지력으로 외부 환경을 변경된 외부환경으로 재정리한다. 즉, 인간의 행위가 정신에서 시작되어 물질적인 영역에서 끝난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은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을 변경시키며 구체적인 물질에서 추상적인 형태로 변화시킨다. 우리들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며, 비록 이것이 테크놀로지의 종국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외부적인 실체(reality)의 특징을 변화시킨다. 결국에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은 객관적인 물질과는 다른 존재론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들에게 제시한다(Simon, 1981; Bunge, 1985).

결국 사람과 환경을 매개하면서 사람들의 실천 행위로 정의되는 테크놀로지는 환경과 사람의 관계 역학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하드웨어 의미의 테크놀로지이고 벡터 의미의 테크놀로지이다. 이때의 벡터는 이니스의 편향과 일맥상통한다 할 수 있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인지하고 얼마나 인지하는 등의 사람과 환경의 관

계 역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4-1)의 테크놀로지, 사회, 사람들, 그리고 환경간의 변증법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해당 테크놀로지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테크놀로지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의미들을 부여한다. 이러한 의미는 제2장의 테크놀로지와 은유에서도 밝혔듯이 해당 사회의 지배적인 생각들 혹은 해당 테크놀로지와 관련이 있는 집단 혹은 사람들에 의해 나타난다. 이 때 행위자들의 의미 부여는 해당 사회의 구조, 제도적 장치가 허용하는 틀 내에서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행위자와 구조의 변증법적 관계이다.

(그림 4-1) 테크놀로지, 사회, 사람들, 그리고 자연의 변증법적 관계



그러나, 사회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거쳐 정착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미는 기존의 테크놀로지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기존의 테크놀로지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 내에서 가능한 테크놀로지로 정착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테크놀로지 구조는 다시 사람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점이 바로 테크놀로지, 사회, 사람들, 그리고 자연(환경)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테크놀로지를 사회, 사람, 자연간의 변증법적인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살펴본 학자들은

해롤드 이니스와 마샬 맥루한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지금까지 등한시 되어 왔던 매체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의 화두를 갖고 커뮤니케이션, 사회, 인간의 인식 등의 관점에서 매체의 정체성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과연 그들이 바라 보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제 5 장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 1 절 해롤드 이니스의 매체관

해롤드 이니스의 사상은 그 동안 많은 곳에서 ‘기술결정론’ 혹은 ‘미디어 결정론’이라는 이름과 함께 그 대표적인 사상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상당 부분이 오해이거나 오독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니스의 저작들 자체가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고 그의 글이 일관되게 하나의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니스를 둘러싸고 결정론자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새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너무 피상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실과는 다르게 기계적인 결정론자로 자주 인용되고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니스가 파악한 역사 변화의 개념은 일종의 생태학적인(ecological) 것이다. 그것은 사회생태학적인 것으로, 문명들은 행위하는 주체로서의 인간과 매체의 물질적 특성에서부터, 필사본의 스타일, 사회구조, 지리, 경제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환경간의 개인적, 구조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를 바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이니스 읽기는 그의 사상을 하나의 원인에서 출발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단순 인과론적 결정론에서 인간의 역동성과 구조적 조건들이 변증법적 작용을 거쳐서 문명이 전개된다는 그의 핵심 주장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데 있다.

이니스의 이러한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개념이 바로 ‘편향(bias)’이라는 개념이다. 편향이라는 말을 흔히 어떤 특정한 매체가 지니고 있는 물질적 특성으로 파악하고 그 물질적 특성으로서의 편향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니스가 말하고자 한 편향은 하나의 매체가 지니고 있는 물질적 특성으로서, 한 사회의 편향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

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매체의 물질적 특성과 함께 사회속의 인간들이 그 특성을 전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시점의 관계망의 양상을 말하는 것이다.

1. 편향 개념의 형성 과정

이니스가 그의 연구를 통해 일관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문명의 진화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식 혹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니스가 각기 다른 제국들을 비교하기 위해 추출하고자 요인들은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사회들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유통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이니스가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니고 있던 가장 핵심적인 가설은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유사한 이유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었다. 각 제국은 행위의 주체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시킨 체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체계들은 역으로 그것을 형성한 행위주체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통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체계에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을 유지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capacity)을 보유한 문명은 문화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고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정도의 지식과 정보를 보유하게 된 문명은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Innis, 1950: 1-8). 계속 생성되는 변화를 강제하고 구속하면서 심지어 무시하는 문명은 대체로 동일한 운명, 즉 문명의 몰락을 맞이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 문명의 몰락과 지속은 특정 편향을 지닌 매체를 사용한 때문이 아니라 변화하는 매체의 환경이 제시하는 새로운 상황을 특정 문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니스는 첫째, 문명의 전환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증적인 증거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시간에 대한 한 문명의 지배적인 개념이 정보나 지식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 문명이 얼마나 성공적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그의 주장을 입증할 역사적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니스에 의하면, 환경의 변화를 역동적이고 체계적인 형

식으로 인식한 문명은 대체로 자신들의 변화하는 정보, 지식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원래 존재하던 토착적인 문화적 형식에 의존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해 필요한 수정을 가하는 것에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나 지식이 포화상태에 이른 문명은 변화의 기계적인 형식들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숙명적으로 바뀌고 적응에 실패하며 결국 문명의 붕괴에 이른다는 것이다.¹³⁾

이니스는 커뮤니케이션과 제국의 관계를 피력하기 위한 각 매체의 편향이라는 말을 할 때 항상 “지식의 독점(the monopoly of knowledge)”이라는 부분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면, 그 매체의 등장 이전에 존재하던 지식의 독점이나 과점의 양상이 변화하게 되고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 특정 매체의 영향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문명의 성쇠나 한 사회의 변화는 매체 그 자체의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니라 매체를 통해 재편된, 지식의 독점 양상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Imnis, 1951: 3-5). 이니스는 이처럼 매체의 물리적 특성과 각 문명의 지식의 독점의 양상은 어느 하나가 결정론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두 영역이 변증법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음을 말하고 있다. 이점을 가장 명확히 표현한 것이 그의 스승인 브로크(James T. Broeke)의 말에 영향을 받은 이니스가 「커뮤니케이션의 편향」의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는, 자신의 화두와 같은 말, “우리는 왜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들에 주목하게 되는가?(Why do we attend to the things to which we attend?)”이다. 이 질문의 바로 뒷부분에서 이니스가 밝히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커뮤니케이션에

13) 이니스는 구어적 전통에 대한 강조를 많은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구어적 전통이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새롭고 창조적으로 쓰일 수 있으며, 구어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의 적응에 필요한 정보나 지식들이 공유될 기회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가 산문에 비해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생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시어가 다른 곳에서 다른 뜻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자면 시어가 문장으로 된 구조보다 훨씬 유연하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는 형식이 된다.

있어서의 변화는 ‘우리가 주목하고자하는 사물들’의 변화들에 뒤따라온다.’(Innis, 1951: xvii)

2. 시간 편향적 미디어와 공간 편향적 미디어

이니스의 커뮤니케이션 사상 중 가장 많이 인용되고 동시에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시간 편향적 미디어와 공간 편향적 미디어라는 두 개의 쌍을 이룬 미디어 이론이다. 이니스는 역사적으로 문명들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각기 상이하게 강조점을 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니스에 의하면 매체들은 인간 문명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인간의 행위들에 어떤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은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겁고 지속성이 있는 매체를 사용한다면, 돌과 같은 지속성 있는 매체는 긴 거리를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들은 보다 적고 탈중심적인 조직이나 기구를 구성할 것이 때문이다. 한편 가벼운 매체를 사용하는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매체의 용이한 이동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한 크기의 영역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크고 중앙 집중화된 기구나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Innis, 1950: 7). 그가 제기하는 매체의 중요성은 바로 각 매체가 지닌 물리적 특성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문명의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목을 인간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 중 일부의 제한된 범위로 한정시키는 매체의 능력 혹은 역량(capacity)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니스는 매체의 특성, 즉 인간의 관심의 범위를 통제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매체라는 것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속성이 있는 매체를 주로 사용하는 각 조직들이나 사회들은 그들의 힘을 주로 시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의미와 종교라는 측면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사용하게 된다. 비록 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그 이유로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각 매체를 사용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오직 가장 중요성을 띄고 있는 지식들에만 그들의 노력을 집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파

피루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가벼운 매체를 사용하는 문명은 무거운 매체를 쓰는 문명이 관심의 초점을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만 한정했던 것과는 달리 법, 통치 체제, 철학 그리고 공간을 다루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른 여러 관심 영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Innis, 1951: 33-35). 즉 매체는 직접적이고 인과적으로 사회나 문명의 양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매체가 지니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는 각 문명속의 구성원들이 가질 수 있는 관심사의 가능성의 범위를 조절하는데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가 제시하고자 한 논의가 무엇이었던 간에 이니스가 그의 책 커뮤니케이션의 편향(The Bias of Communication)에서 밝힌 매체에 관한 견해는 기술 결정론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니스는 인간이라는 주체와 매체라는 것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궁극적 결과는 단순히 특정한 관심 영역으로 그 초점을 한정하게 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문명은 비록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관심 영역을 벗어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영역은 여전히 탐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니스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문명의 행위주체가 개인이라는 형태이든 조직이든 사회가 되든지 간에 그 극단적 단계에 이르면 그 문명의 인식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단단하게 굳어져 경직되고 마침내 “지식의 독점”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이니스에게 있어서 문명의 전환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의 사용은 ‘지식의 특성’을 결정하고 한 문명의 인식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제약한다. 이런 측면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미디어는 새로운 인식의 양상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문명의 출현으로 이끄는” 힘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Innis, 1951: 34).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역사를 추동하는 힘은 역동적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미디어이고 인간은 한편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된다. 만약 이렇게 이니스를 읽은 것이 적절한 독해라면 일반적으로 이니스를 기술결정론자로

비판하고 있는 학자들의 주장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으며 때때로 그 비판의 강도에 따라 오독이라고 부를 만한 경우가 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니스의 저작들 속에서 인간이라는 주체가 매체의 역사들을 통해 밝힌 이니스의 견해 속에서 여전히 나름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이점은 이니스의 주요 개념인 편향(bias)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서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3. 매체의 편향, 그 내용과 의미

해당 사회 혹은 제국은 그들을 다른 사회 혹은 제국과 구별되게 만드는 지배적인 편향을 갖고 있으며 해당 편향은 지배적인 매체로 현재화 된다. 이러한 매체는 해당 사회에 적합한 제도적인 권력 구조(*institutional power structure*)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흡수하고, 기록하고, 변형하여 지식 체계로 전환시킨다. 이니스에게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해당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사회의 편향이 변증법적으로 작동되면서 지배적인 편향을 갖게 된다(Crowley, 1985: 236). 왜냐하면, 이니스가 말한 편향은 각 문명의 사람들의 관심이나 주목을 인간의 여러 가지 관심사들 중 일부의 제한된 범위로 한정시키는 매체의 능력 혹은 역량(*capacity*)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특정 시대에는 특정한 편향이 지배적이었으며 이 편향은 사회관계에 한계(*limits*)를 초래하고 그 사회의 개념적 영역으로서의 사상, 표현, 그리고 실천의 정당한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향들은 비가시적이므로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편향의 형태를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당 사회의 편향이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반영되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편향이 또한 사회의 편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편향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개입하는 주체적인 역량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측면이다.

이니스의 화두인 “왜 우리들은 항상 주목하는 것에만 주목하는가(Why do we

attend to the things to which we attend?)”이며 편향은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니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지배적인 매체와 지배적인 권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매체 혹은 매체의 물리적 특성에서 나오는 편향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적 매체와 지배적 권력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체제와 동학을 통해 각 역사적 시기의 특징적인 사회 양식이 생겨남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 매체가 그 사회가 보여주는 특정한 양식을 곧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독점이라는 것을 통해 한 사회의 특정한 양식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각 역사적 시기마다 그 문명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지배적인 매체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지배적인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고대에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다. 이 지배적인 매체에의 접근성이 극히 일부에게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이니스는 ‘지식의 독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식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과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니스의 역량의 개념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한계와 기회라는 요소와 어떤 주어진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즉, 역량은 물리적이고 지적인 한계와 기회이며 변증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니스는 역량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편향을 통해 해당 사회의 특수한 사회 형태에 있어서 지식과 권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니스는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어떠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전달되는가를 살펴보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해당 사회의 특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시스템의 편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이 지배적으로 사용하였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중요 매개적 요소로 또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로 파악한 것이지 매체가 지니는 결정력 그 자체에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삼고 있지 않다.

이니스가 제시한 편향 개념에 대한 오해는 그를 결정론자로 몰아가는 대표적인 근거인데, 위에서 비판하고 있는 지점을 간과한 이니스 독해의 대표적인 예가 캐롤린 마빈(Carolyn Marvin)의 주장이다. 이니스는 편향이라는 개념을 미디어의 정향적

성격(orientation)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다. 시간-편향적 미디어는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아무리 오래전에 만들어진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왜곡되거나 상하지 않은 형태로 존재한다. 여러 세대로 분리된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 손에 쥐 수 있다. ... 공간-편향적 미디어는 메시지의 전달에 있어서 공간적 확장이라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지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 메시지가 만들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왜곡되거나 손상되지 않고 존재한다(Marvin, 1983: 32).

마빈의 이러한 이니스 독해는 거의 오독에 가깝다. 마빈은 위 인용문에서 제시한 이니스 이해를 통해 시간-, 공간-편향에 대한 이해를 계속 전개하고 있다. 마빈에 의하면, 구어, 점토판, 양피지 그리고 돌과 같은 것은 시간-편향이 있는 미디어인데 왜냐하면 그 특성상 오랫동안 지속성이 있고 이동에는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종이 등과 같은 공간-편향적인 미디어는 가볍고 부서지기 쉬우며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될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세월을 거치면서 지속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그 결과로 시간 편향적 미디어는 위계적 통치구조, 탈중앙집권화, 그리고 전통을 강조하게 되고, 반면 공간 편향적 미디어는 중앙집권화, 관료주의 등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 끝에 마빈은 이니스를 비판하면서, “왜 어떤 특정한 매체가 어떤 시기에 오직 하나의 편향만을 지닐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또한 어떻게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이 분석에 있어서 상호배제적인 항목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니스는 의미라는 것이 기술적인 객체들(매체들)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오히려 사회가 그것을 적용하는 특징적이고 독특한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Marvin, 1983: 34-35)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이니스의 편향 개념을 오독함으로써, 정작 이니스가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을 완전히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마빈의 이니스 이해가 오독이라는 점은 이 글의 앞부분에서 그리스의 매체와 편향에 관한 이니스의 언급을 통해 이미 밝힌바 있지만, 그의 라디오에 관한 설명을 통해 사회체계의 결정력과 매체의 물리적 특성이 변증법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라디오의 물리적 특성으로부터 그것의 응용과 적용에 있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역량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디오는 음성 전파를 전송함으로써 수신자에게 도달하게 되고 수신자는 그 전파를 수신기기를 통해 청취함으로써 원래 소리와 거의 같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 특성 이외에도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요인들 즉, 방송시간에 대한 경쟁과 주파수 대역, 전파 수신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제약, 전송에 필요한 비용, 수신기기의 가격 그리고 구어적 전달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가능성 등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과연 라디오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우리가 인식하는 라디오란 무엇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라디오가 처음 등장할 때는 스튜디오 내에서 혹은 전화선을 이용한 청취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의 물리적인 능력을 강조하여 매우 참여성이 농후한 매체로 간주되었다. 그것의 물리적인 특성에 근거하여, 라디오는 민주적인 교환과 대중들의 비판적인 사고를 증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특성만 고려하면, 매우 일방적인 신문의 메시지에 저항할 수 있는 매체로 간주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니스는 물리적 특성과 함께 앞서 지적한 다양한 물리적, 기술적, 경제적인 요인들과 함께, 라디오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에서 사용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라디오가 신문과 같이 상업성을 갖게 되면서, 대다수의 청취자들이 광고에 노출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청취자들이 방송에 지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엄격하게 짜여진 일정의 방송을 듣게 되고 또한 청취자들도 점점 다소 감각적인 메시지를 선호하게 되었다. 라디오를 당시의 신문에 의해 형성된 특정한 편향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매체로 보았지만, 특히 미국에서 그것이 이용되던 맥락인 자본주의라는 사회체계에 의해 라디오는 인구학적인 시장을 통제하는데 이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라디오는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공간 편향적인 특성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런 고찰을 통해 이니스가 밝히고자 한 것은 매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편향과 새로운 매체가 어떻게 결합되는

가라는 문제였다. 여기서 주목할 내용은 어떤 특정한 미디어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 무엇이 가능할 것인가를 결정해나가는 역량은 그 매체가 속한 사회구성원들이 새로운 변화를 개념화하는 지적인 역량과 그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실제로 실행해 내는데 필요한 매체의 물리적 역량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동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라디오의 경우, 라디오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 역량과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지배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고, 경쟁적이고 광고에 기반을 둔 상업적 체제는 라디오라는 매체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편향을 생산해 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니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와 편향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지 매체의 물리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해당 매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Innis, 1951: 156-189).

이니스의 역사 이해에 의하면 제국의 독점적 고정성과 창의성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했다. 따라서 만일 제국이 커뮤니케이션을 독점하지 않고, 더 나아가 지식을 독점하지 않는다면 문명을 고양하는데 성공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만약 미디어의 다원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상호적인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제국은 역설적으로 제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니스가 일관되게 이런 시각을 유지했다는 것은, 제국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가 들고 있는 제국에 대한 각각의 예는 문명이 제국이 되었을 때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니스에 따르면, 서구는 두 가지 이원론의 형태 사이에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진동을 통해 발전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를 “편향(bias)”이라고 불렀다. 그 중 하나는 시간적 편향(temporal bias)이고, 다른 하나는 공간적 편향(spatial bias)이다. 그는 서구는 시간적 편향에서 시작하여 공간적 편향과 함께 마무리되었다고 주장한다. 두 편향은 모두 고여 있는 문화를 만들고 열린 생각의 전파를 막는다. 그러나 이런 정체 상태는 각각의 경우에서 구별되게 나타난다. 각각의 편향, 혹은 편향된 문화는 한 제국의 일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각각은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어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 즉 편향의 방향은 미디어의 특성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독점은 닫혀진 총체성(totality)이라는 측면을 강화시키고 유지시켰다. 이니스는 이 지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아마도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사용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그것에 의해 유통되는 지식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결정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침투하는 영향력이 결국에는 생활과 유연성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매우 힘든 문명을 창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Innis, 1951: 34).

체계는 그 정의상 완고하며, 변화에 대해 저항적이다. 이니스는 저항이 시간이나 공간 중 하나가 과도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편향들은 특정한 종류의 능력만을 선호하며 다른 것들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끊임없이 스스로가 배제되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공격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격은 종종 폭력적이며, 인간의 고통을 낳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파괴하는 거대한 불안정의 상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이니스는 새로운 지식의 맹아들이 오래된 체계의 주변부(marginals)에서 출현하고, 항상 새롭고 필적할만한 미디어를 동반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¹⁴⁾

그의 커뮤니케이션관이 결정론적인 것이라기보다 변증법적이라는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정을 물리적인 매체와 정신적인 부분인 내용과의 변증법적인 작용 과정이라고 지적한 것을 일차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매체는 그것에 담기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그 내용을 최대한으로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인 형식의 수정 혹은 보완을 요구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이 변증법적인 특성을 갖는 또 다른 부분은 사회와

14) 이렇게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서의 어느 특정 매체를 그들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예는 작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여실히 증명을 하였다. 노무현 지지자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하여 그들의 결속력을 다짐으로서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을 시켰다. 또한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전세계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한 학생이 당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친구에 보낸 단순한 이메일이 일파만파 퍼져 급기야 중국의 체제 전복에 기여를 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매체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발견할 수 있다. 역사적 시기별로 지배적인 매체는 그 사회의 특징적인 양식을 만들어 내고, 또 각 사회의 특징적인 지배 양식은 그 지배 양식을 유지하기 위한 특정 매체를 유지하고 선호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변부에서 시작된 새로운 매체의 특성은 지식의 독점 양상이라는 지배적인 양상을 서서히 붕괴시키고 지배적인 매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이로써 새로운 지식의 독점양식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매체나 각 사회는 그 나름의 특정한 편향이 존재하는데 편향을 각 시기별로 분할해서 보면 물리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변증법적 진행의 시기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자로 표현된 매체의 특성이 지니는 물리적 편향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만 그 물리적 편향은 각기 다른 역사적 시기에서는 다른 사회적 편향과 만날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매체의 물리적 편향이 동일한 방식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결정한다는 방식의 설명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니스를 매체 결정론적 시각으로 파악하게 되면 그가 여전히 그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역사의 중요한 한 주체적 요소를 그의 논의에서 사라지게 하기 때문이다.

제 2 절 마셜 맥루한의 매체관

맥루한 만큼 많은 논란의 가운데 있는 학자도 드물 것이다. 맥루한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미디어의 이해를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난삽한 논의와 추상적인 예언에 가까운 글들을 통해서 학문적인 분석이나 이론화 대신 새로운 경향을 민감하게 받아들인 미디어가 선호하는 스타와 같다는 혹평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기술결정론과 기술 유토피아주의를 확산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공공히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전파시키는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비판의 강도는 “기술결정론”, “정신나간 소

리(nonsense)”, “거짓말들” 등 맥루한에게 쏟아진 혹평들을 통해 볼 때 잘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의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맥루한 자신은 이런 비판을 단호히 거부했다. 특히 많은 예술가들과 미디어 전문가들 그리고 대중매체는 그의 이론에 환호했지만, 학계는 냉담하기까지 했다.

맥루한 자신도 학계가 보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이론에 대한 혹평을 자신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로 돌리면서 나의 주장은 조이스와 엘리엇 그리고 상징주의자들의 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요지의 편지를 지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McLuhan, 1987). 때문에 맥루한 자신도 학계에 대한 강한 비판적 시각과 불신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순적이고 상반된 평가들을 제공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맥루한 자신의 글들이며 그가 행한 많은 인터뷰와 주장들이다. 가장 아니러니 한 것은 그는 이러한 오해 혹은 비판의 소지가 있는 작업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맥루한의 학문적인 배경과 그가 주장하는 미디어에 관한 철학을 살펴보면 어찌면 이런 상반된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을 기술결정론적인 것으로 각인시킨 학자들 중 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라고 한다면 캐리(J. Carey)와 윌리엄즈(R. Williams)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임스 캐리는 맥루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전범을 이루고 있는 그의 논문을 통해, 맥루한의 이론적 성과는 사실상 그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니스(H. Innis)로부터 전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그의 이론적 학문적 성취를 상당 부분 깎아 내린바 있다(Carey, 1969). 이후 캐리는 맥루한을 기술 유토피아주의적 전통 속에 위치시키면서, 그가 맑스의 저작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전자적 숭고함의 수사학(the rhetoric of the electric sublime)”이란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그를 대표적인 기술 유토피아주의자로 위치시킨 바 있다(Carey, J., & Quirk, J. 1970: 219-41). 이후 미국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맥루한 관련 논문은 캐리의 이러한 맥루한 해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이후에도 맥루한에 대한 캐리의 시각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맥루한과 머포드, 맥루한과 벤야민, 그리고 맥루한과 옹 등 맥루한과 유사한 주장과 시각을 보인 학자들을 다루면서도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맥루한의 시각을 기술 결정론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맥루한을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캐리는 학자로서의 그의 명성을 맥루한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형성해 왔다고 해도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캐리도 맥루한의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밝힌 부분도 있지만, 정작 그러한 통찰의 원천은 항상 이니스에게 돌렸다.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네트워크와 컴퓨터의 등장으로 형성된 미디어 환경은 맥루한의 주장을 다시금 되돌아볼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맥락에서 맥루한에 대한 관심은 다시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맥루한의 인문학적 배경과 지적 원천은 한 문화속의 기술과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주 창조적인 해석이 가능한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맥루한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나 내용들이 매우 설득력이 있고 꼼꼼한 재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론적 특징과 장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의 이론의 수용에 관한 맥락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대략적으로 지적해 두고 이 글에서는 그의 미디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그의 인문학적인 입장 내에서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1. 기술 문화적 해석학

미디어에 대한 맥루한의 논쟁적인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가 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관심을 미디어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무의식에 특정한 조건과 전제들을 부여하는 미디어의 형식이 지닌 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간략한 주장인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말이 그의 주장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맥루한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주장이 과연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어의 내용보다는 형식이 중요하고 그 형식성을 부여

하는 원천인 미디어가 우리의 인식의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주장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흔히 맥루한을 기술결정론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맥루한이 개개인의 감각의 변환이라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힘의 작동기제에는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분명한 목소리로 지배적인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숙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세상에는 불가피하게 맞이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이니스의 핵심적인 주제가 “지식의 독점”이라는 기제를 통해 사회와 미디어가 보여주는 관계 맺음의 양상이라는 것에 비교해 볼때, 맥루한이 고려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영역의 역할이 그의 주장 속에서는 아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게 비판적인 학자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정도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맥루한은 그가 서구 철학이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편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이성(reason)과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literacy), 그리고 합리주의와 하나의 단일 기술(활자 기술)을 혼동해 왔다”(McLuhan, 1964: 15). 맥루한의 커뮤니케이션관은 캐리가 지적하듯이 “강한” 기술결정론이라기 보다는 기술-문화적 변환에 관한 이론, 즉 “미디어를 통한 변환기제(mediamorphosis)”에 관한 이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의 이론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수용방식이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의 이론이 역사성을 지닌 인간 관계망들의 일반적인 작동과정을 기술-문화적인 환경을 통해 이해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에 많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맥루한의 이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미디어를 통한 변환기제를 의미하는 미디어 모포시스라는 말이다. 미디어 모포시스는 로저 피들러(Roger Fidler)의 책 제목이다. 피들러는 그가 쓴 1991년 한 신문기사의 제목에서 자신이 새롭게 이 말을 만들어 쓰게 되었다고 그의 책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지만, 민속음악학자인 커트 블라우코프(Kurt Blaukopf)의 1989년 논문에서 이미 맥루한적인 의미를

함축한 이 말을 제목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 논문의 내용도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서 제시하는 측면을 잘 수용하고 있다.

맥루한의 주장은 상당부분 해석학적 전통과 맥이 닿아 있다. 즉 기술-문화적 해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학, 감각들, 그리고 문화에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고 있는 미디어와 기술의 영향력의 해석과 관계된 하나의 과학이며 예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존재함” 혹은 “세상의 존재 방식”에 관한 집합적 감각 혹은 공통의 감각(*sensus communis*)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라는 점은 우리가 미디어와 기술을 통해 우리들 일상의 삶속으로 우리 자신을 확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세상에 관한 이해를 만들어가는 방식 속에 깊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맥루한은 그의 저작을 통해서 감각 그리고 언어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공물들과의 물리적 관계들에 근거를 둔 경험의 인식론을 추구했다. 이것은 논리적 개념들에 근거한 인식론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의 주제중의 하나이다. 맥루한은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각기 특정한 역사적 시기마다 그 시기의 특징적인 미디어와 기술들이 특정한 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작동하는 곳에서 경험이 우리들의 이해와 지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기술-문화적 해석학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맥루한의 미디어에 대한 주장은 그의 기술-문화적 해석학이라는 탐구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그는 미디어는 다양한 각 감각들과 속성들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혹은 지체시킨다고 주장했다. 맥루한은 각각의 미디어는 그것이 도입되는 문명의 역사적 상태에 따라서 각기 다른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기술이 도입되는 맥락적 요소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각 미디어를 쓰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계없이 특정 감각에 특징적으로 작동하는 효과를 지닌 각 미디어의 독특한 형식적 부분이 있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 즉 구어적인 말, 귀와 음향적 미디어의 결합, 그리고 글쓰기, 활판 인쇄술과 눈 그리고 시각적 미디어의 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간단히 나타내면 <표 5-1>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덧붙여야 하는 것은 맥루한의 해석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관찰하는 맥루한 지지자들은 이러한 그의 구분이 정태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미디어의 개입을 통한 진행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하며 적극적으로 변화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5-1> 기술-문화적 변형의 전개

기술(Technology)	감각들(Senses)	문화적, 문명적 상황
구어	청각(귀)	구술문화
글쓰기	시각(눈)	문자/시각문화
활판 인쇄	시각(눈)	시각/기계 문화
라디오	청각(귀)	전기(Electric)/청각 문화
텔레비전	청각/시각/촉각	전기/전자(Electronic)문화
컴퓨터	모든 감각	전자 문화

맥루한은 새로운 미디어들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어설픈 도덕 주의적 판단은 그 새로운 미디어가 도입되는 것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진지한 통찰이나 이해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맥루한은 “이니스는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양식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측면을 최초로 지적한 사람”이라고 회고하고 있다(McLuhan, 1962: 65). 맥루한은 오늘날과 같은 전자적 상황에서는 “직선적 관점(lineal perspective)과 회화적적인 구조로는 그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McLuhan, 1960: III 2-3). 이러한 그의 입장은 이미 이니스가 제기한 바 있는 알파벳과 유클리드적 공간의 관련성에 관한 지적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그의 글에서 구텐베르그의 은하계에서 펼쳐질 내용을 내비치고 있다. 어쩌면 구텐베르그의 은하계의 핵심내용을 요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다른 모든 글쓰기의 형식들 중에서 오직 음성적 알파벳 하나가 모든 청각적 그리고 촉각적인 것들을 시각적이고 추상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글자들은, 즉 문명의 언어는, 모든 우리의 감각들을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다(McLuhan, 1960: I-18).

구어를 포함하는 모든 미디어들이 우리의 다양한 감각들의 기술적인 확장들이나 것처럼, 이러한 우리의 감각들의 확장이라는 공동의 과정은 또한 미디어들을 그들의 다양한 전환의 과정으로 이끈다. 또한 우리의 개별 감각들의 경험이 우리의 다양한 감각들에 통일성을 가져다주는 어떤 내적 공통 감각(common sense)에 의해서 처리되듯이, 우리의 감각들의 연장으로서의 미디어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기술적 확장은 그들에게 통일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과정을 거치며, 또한 이 과정은 기술적 확장으로서의 우리들의 감각들이 상호간에 서로 침투하고 또한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서로 “전환”됨에 따라, 항상 그들의 형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McLuhan, 1960: I-18).

맥루한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의 존재를 느낄 수 없듯이 각 기술-문화적 상황의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기술-문화적 상황의 지속적인 혹은 결정적인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맥루한은 우리 인간들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지니고 있는 의미나 그 작용과정을 충분히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전자적 기술으로의 전환이나 그 전개상황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맥루한은 그에게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러한 전환의 총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또 다른 기술-문화적 전환이 이루어질 때에야 비로소 전자적 미디어로의 전환이 지닌 의미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 매체의 내재화와 감각 비율의 전환

맥루한은 자신의 연구가 “결정론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연구가 사회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증진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을 명료하게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McLuhan, 1962: 11). “음성적인 알파벳 기술의 내재화(interiorization)는 인간들을 마술적인 귀(청각적)의 세계로부터 중립적이고 시각적인 세상으로 전환시켰다”(McLuhan, 1962: 27)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맥루한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재화’라는 개념은 그의 사상을 결정론적인 아닌 과정적 입장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맥루한이 그의 내재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특정한 문명들 속에서 일어나는 기술들의 변화들은 감각 패턴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러한 감각 패턴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한 문명 속에서 기술은 감각들의 확장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의 매체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등장하게 된다. 특히 생물학자인 영(J. Z. Young)과 문화인류학자인 홀(E. T. Hall) 등의 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맥루한은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인공물들을 하나의 인간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새로운 도구나 기술의 등장 이 인간의 감각들의 비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러한 개입으로 전환을 가져온 감각의 비율은 인간에게 내재화되며, 그러한 내재화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변화들이 인류의 역사를 형성해온 중요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맥루한이 주목하고 있는 감각비율의 전환(the transformation of sense ratio)이라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화’라는 개념과 함께, “공통 감각 혹은 공유 감각(the sensus communis)”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래 이 공유 감각이라는 용어는 맥루한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비코(G. Vico)가 사용했던 개념인데, 우리들 내부에서 활동 중인 여러 감각들 사이의 동시적인 상호 작용(simultaneous interplay)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공유 감각은 개개인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수준 혹은 문화나 문명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유 감각은 한 문명 내에서 보이지 않는 바탕(ground)으로 작동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들(figure)의 파악이 가능해지게 된다.

맥루한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그의 비교적 초기 저작인 〈구텐베르그의 은하계〉에서부터 그의 후기 저작인 〈미디어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문명의 기술-문화적 전환과정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언어와 은유 그리고 미디어라는 것의 범위를 매우 모호하고 그만의 특유한 방식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다음의 인용문은 다소 길지만 언어나 감각의 전환 등과 같은 개념에 대한 그의 이해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며, 특히 이 인용문과 〈미디어의 법칙〉의 한 부분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Marshall McLuhan & Eric McLuhan, 1988: 225-226).

언어는 경험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한 형태에서 형태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은유이다. 화폐도 기술과 노동을 저장하고, 한 기술을 다른 기술로 전환한다는 의미에서 은유이다. 교환과 전환의 원리 혹은 은유의 원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환하는 이성적인 능력이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속에서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수레바퀴든 알파벳이든 혹은 라디오건 간에 특정한 기술적인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이들 감각의 거대한 확장이 폐쇄적인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각들은 폐쇄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공유) 의식(con-sciousness)이라고 부르는 경험 속에서 이 감각(내용)을 저 감각(내용)으로 끊임없이 전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확장된 감각, 도구, 기술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상호작용 혹은 집합적 (총체적) 인지가 불가능한 폐쇄적인 체계였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전기시대에서는 우리의 기술적 도구들이 한꺼번에 공존이 가능해진 바로 그 즉시성이라는 본질이 인류역사에 아주 새로운 위기를 창조하였다. 우리의 확장된 능력과 감각들은 이제 하나의 단일한 경험의 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의 경험의 장은 감각들이나 능력들이 (폐쇄적인 아닌) 집합적 (총체적) 의식이 가능한 곳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기술들은, 우리의 확장된 능력과 감각들처럼, 이제 합리적 공존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상호작용과 (적절한) 감각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이 바뀌나 알파벳 또는 화폐처럼 그 속도가 느린 것일 때에는 그것들이 분리되고 폐쇄

적인 체계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수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지금과 같이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움직임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그 규모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우리 인간들의 활동에 있어서, 이러한 확장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비율은 이제 필수적으로 집합적인 것이 되며, 이는 우리의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합리성이 항상 그러하였었고 또한 한때 ‘지혜’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과 같은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맥루한의 주장은 결정론적인 입장이라기보다, 비판적인 인식과 관찰을 통한 인간들의 의식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내재화한 인간들의 기존 감각비율에 충격을 던져주는 전자적 미디어의 등장 of 힘을 빨리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맥루한이 지각한 위기적 상황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라 맥루한이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은 감각이라는 것이 한 종류의 이성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감각들 그 자체에는 하나의 (합리적) 비율 혹은 합리성이라는 것이 있다”(Marshall McLuhan & Eric McLuhan, 1988: 132). 따라서 맥루한에게 있어서 감각들은 단순히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내용을 구성해 가는 능동적인 것 힘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점을 간과하게 되면, 기술적 환경이 인간의 감각을 결정한다는 결론으로 직결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3. 인간의 확장

맥루한은 그의 정식화한 미디어 이론인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말 속에서 단순히 각각의 미디어가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단순 인과적인 법칙성을 말하려 하기 보다는 어떤 연관성의 체계와 미디어들 간의 내적인 역학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사실은 모든 미디어의 특성, 즉 모든 미디어의 ‘내용’은 언제나 또 하나의 미디어라는 것을 뜻한다. 글을 쓸 경우의 내용은 말이고, 인쇄물의 내용은 씌어진 말이며, 인쇄된 것이 전신의 내용이 된다”(McLuhan, 1964: 8). 맥루한은 각 새로

운 미디어는 어떤 환경을 이미 낡았거나 손상된 것으로 만들어 낸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그 낡고 손상된 것들을 하나의 예술적 형식으로 바꾸어 놓는다고 주장한다 (McLuhan, 1964: viii). 따라서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말은 개별 미디어가 지니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에만 집중해서는 그 진의를 왜곡하기가 쉽다. 따라서 미디어가 메시지라는 말은 새로운 미디어와 이전 미디어들의 혼성을 통한 ‘과정적’ 요소에 대한 강조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이 주로 관심을 두는 영역은, 앞서 말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각 미디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환경과의 관련성 속에서, 미디어가 기존에 존재하는 환경의 변환 혹은 증폭의 과정을 통해 어떻게 심리적, 사회적 결과들을 형성해 나가는가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어떤 미디어나 기술의 ‘메시지’는 그것들이 인간들의 삶에 도입됨에 따라 나타나는 ‘척도(scale)’, ‘속도(pace)’ 그리고 ‘패턴’의 변화”이기 때문이다(McLuhan, 1964: 8). 이런 의미에서 기술과 미디어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지역에 상관없이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들과 그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감각의 균형점 혹은 감각의 평형 상태는 주로 각 미디어가 도입되는 문화에 달려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맥루한은 “텔레비전 영상의 영향력은 한 문화와 다른 문화들에서 각각의 문화에 존재해 온 기존 감각 비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한다(McLuhan, 1964: 45).

맥루한이 제시하는 기술과 문화의 작동방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그 하나는 감각들에 작동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어떤 미디어도 단독으로는 의미와 존재를 갖지 못하며, 다른 미디어와 언제나 상호작용을 행함으로써 의미를 낳게 되고 존재를 주장할 수 있기”때문이다 (McLuhan, 1964: 26). 감각 데이터가 가득 차 있고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과는 고립된 상태에서 확장되고 수용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핫 미디어와 그 반대적 성격을 지닌 쿨 미디어라는 그의 이분법적 정식화는 앞서 살펴본 <뉴미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에 관한 보고서>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다. 이러한 구분법은 그에게 미디어의 전환에 관한 힘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의 목적은 미

디어들을 핫 미디어나 쿨 미디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핫/쿨 미디어라는 구분은 각 미디어가 처한 문화와 역사적 상황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핫/쿨 미디어와 같은 정식화는 이니스의 시간-편향 미디어, 공간-편향 미디어에 대한 강조와 유사하게 느껴지지만 이니스의 시/공간 편향성이 미디어의 물리적 속성에 의한 정태적인 구분이 아닌 것처럼 맥루한의 핫/쿨 미디어라는 구분도 정태적이고 물리적 속성에 의한 구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이니스처럼 맥루한도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관심 보다는 핫/쿨미디어의 구분을 통해서 미디어와 그 미디어를 사용하는 주체들인 수용자들 사이의 관계망으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우리의 다섯 감각들의 확장인 미디어가 서로 작용할 때 우리 감각의 내부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내부에도 새로운 배분 비율이 만들어진다(McLuhan, 1964: 53). 따라서 미디어가 각 미디어가 처한 전환의 맥락과는 상관없이 핫 혹은 쿨한 속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들의 등장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전환의 맥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맥루한은 감각들의 지속적인 전환과 미디어의 형식들 속에서 역사적인 순간들을 포착해냈다. 그에 의하면 “어떤 하나의 유기체에 있어서나 조직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가 충분히 이용되면, 어떤 종류의 반대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McLuhan, 1964: 30).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그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사태가 발생될 때 이미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형태와 대립하는 형식을 취하여 나타나기” 때문이며, 이것은 “예로부터 알려져 온 원칙이다”이라는 것이다(McLuhan, 1964: 34).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해서 맥루한은 그의 핵심적인 역사적 전환에 관한 주장을 추론해 낸다. 즉 기계의 형태에서 순간적인 ‘전기의 형태’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져 감에 따라 외파(explosion)는 역전하여 내파(implosion)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맥루한은 토인비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역전 현상의 수많은 예를 보여주며, 이러한 역전 현상을 가장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역경’(易經, I Ching, The Book of Change)을 들며, 이를 동양의 지혜를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에 대한 논의는 항상 인간의 위치에 대한 문제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장으로서의 미디어를 만들어낸 주체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미디어는 자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미디어의 힘과 효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한 미디어는 그것들의 작동 조건을 우리에게 강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디어는 우리들 자신의 확장인 동시에 그 상호작용, 혹은 진화는 반대로 우리들 자신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McLuhan, 1964: 49). 블레이크의 말을 인용하면서 맥루한은 인간의 위치가 그의 미디어 이론에서 중요한 한 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지각하는 기관이 변화하면 지각의 대상도 변화하리라. 지각하는 기관이 닫히면 그 대상도 닫히리라”(McLuhan, 1964: 46)는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 없이 그리고 인간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미디어의 물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디어의 특성은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우리가 매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나르시스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지 못하고 환상적인 이방인에 도취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연장으로서 혹은 우리들 자신으로서의 기술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취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맥루한이 “우리가 테크놀로지와 지속적으로 접촉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그 테크놀로지의 ‘자동제어장치화’시키고 있다”(McLuhan, 1964: 46)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맥루한이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그에게 붙은 이름표인 결정론적인 이론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 깨달음이 없는 상황에서만 이러한 현상은 결정론적이고 운명적인 것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생리학적으로 테크놀로지 (혹은 갖가지 신체적 확장)를 사용하고 있는 인간은 언제나 이것들에 의하여 변하고, 또한 반대로 그 인간들은 그 테크놀로지를 바꾸는 방법을 계속 발견해 간다”(McLuhan, 1964: 46). 그 결과 “전기 시대에 이르러 우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모든 인류를 스스로의 피부로 감싸기에 이른 것이다”(McLuhan, 1964: 47). 이런 상황을 깨닫는 것, 그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맥루한은 주장한다.

“두 가지 미디어의 혼성(hybrid) 혹은 만남은, 거기서 새로운 형태가 탄생하는 진

실과 계시의 순간이다. 두 가지 미디어 사이의 균형관계는 우리를 두 가지 형태의 경계선에 세우고, 우리를 나르시스의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게 한다”(McLuhan, 1964: 55). 혼성된 형식이 방출하는 대표적인 에너지로서의 전기적 시기의 내파(implosion)라는 현상은 문자적인 서구 문화에 구어적이고 부족적인 귀의 문화를 가져 왔다. 즉 “서구의 전기 테크놀로지는 시각적 인간, 눈의 인간을, 이음매가 없는 직물처럼 상호간의 관련성과 의존성을 지닌 부족적, 구술적 인간으로 다시금 변환시키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McLuhan, 1964: 50).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전환 혹은 변환이 과거 구술 사회에서 문자 사회로의 전환과 유사하기는 하여도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기적인(electric) 내파가 초래한 현상에는 그것 자체의 특징적인 전환들이 있고, 그것의 특징적인 미디어의 변형, 전환(mediamorphosis)이 있다.

4. 맥루한의 매체관

지금까지 맥루한이 생각한 미디어의 의미에 관한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다. 우선 맥루한은 미디어를 연구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것은 우리의 “상상할 수 있는” 풍경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에 대한 고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다. 또한 보이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아니라 그러한 내용이 보여지게 만드는 바탕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관한 연구나 이해를 하고 싶으면,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감각들이 어떻게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를 통해 프로그래밍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맥루한은 새논과 위버(Shannon & Weaver) 등의 의해 제시된 ‘수도관(pipeline)’모델 즉, 커뮤니케이션을 파이프의 양쪽 끝에 있는, 송신자에게서부터 수신자에게로 메시지가 선형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전통적인 이해방식에 대해 성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McLuhan, 1988: 86-91). 이러한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방식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꽤나 깊이 각인된 이미지였다. 맥루한은 자신의

대표적인 책들을 통해 이런 이해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 주었고, 자신을 이해하는 동료에게는 구체적으로 “나는 ‘전환(transformation)’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오직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이론들은 모두 전달 혹은 운반(transportation)에 관한 이론일 뿐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McLuhan, 1987: 505). 즉 맥루한이 제시하려는 미디어에 대한 이론은 내용을 담는 용기에 관한 이론이나 혹은 그 용기의 성격에 관한 이론 혹은 그 운반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관한 이론은 미디어에 관한 연구에 있어 방향을 잘못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연장이거나 반복인줄도 모르고 빠져드는 나르시스의 중독된 상태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맥루한의 논리에 따르면, 기술이 지닌 기술적 특징에 매혹되어서 그것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전환의 힘을 보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위험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표 5-2〉 기술—문화적 전환과—감각의 공간

작동중인 체계	기술	문화적 결과
전—유클리드적/변화무쌍한 체계	말	전—문자적/청각적 공간
유클리드적 체계	글쓰기	시각적 공간
후기—유클리드적 체계	활판인쇄술	기계적/시각적 공간
후—유클리드적/변화무쌍한 체계	전기적/전자적 기술	후—문자적/청각적 공간

맥루한은 미디어의 핵심적 성격은 미디어 그 자체의 물리적 특징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각각의 미디어는 인간의 감각들의 연장이며 또한 각 감각들은 자신들만의 공간(space)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귀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인 공간은 시각, 촉각, 후각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통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설명보다 시각적

공간/청각적 공간과 같은 설명을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에서 추론할 수 있는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 중 중요한 한 요소가 있다. 즉, 시/청각적 공간이라는 그의 개념화에서 맥루한은 미디어 자체(figure)보다는 보이는 미디어와 인간 감각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심미적 경험의 공간(ground)과 그것의 전환을 가장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결론적 주장과도 같은데 이것을 굳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맥루한의 미디어에 관한 논의가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유는 그의 매체이론 그 자체가 하나의 미학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며, 다른 것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설명하는 기본적인 토대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미디어 이론이 결정론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맥루한 자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비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의 저작의 검토를 통해서도 단순히 결정론이라는 분류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그의 이론에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다. 맥루한은 분명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디어의 상황에 대해 경고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숙고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한, 세상에는 불가피한 일이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Marshall McLuhan, Quentin Fiore & Jerome Agel, 1967: 25).

그의 미디어 이론은 사회과학적 이론의 형태가 아니라 아포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견고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의 미디어 이론을 파악할수록, 우리는 그가 경고한 선형적 이성주의의 틀로 세상을 “보고” 있으며, 다른 풍부한 접근 방식에 관한 말과 이야기를 “듣지”는 않는 것이다. 이는 그의 미디어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맞이하게 되는 패러독스이기도 하다. 그가 말하는 미디어의 범위를 보면 이러한 패러독스는 한층 더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캐리나 윌리엄스의 비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맥루한 이론의 특징과 장점도 또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다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갈등이 던지는 긴장의 강도를 수용하는 사람들의 감수성의 차이가 아마 그 해답일 것이다.

맥루한은 말한다. “나는 미디어를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의 경험을 구조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결정하는 정보와 지각의 커다란 한 실체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다”(McLuhan, 1975: 75).

제 6 장 결 론

근대성은 사람들이 항상 그랬던 유토피아를 찾아 가는 작업이다.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근대성은 계몽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 때의 계몽은 바로 사람들이 무지에서 벗어남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실천 이성에 입각한 근대성을 강조하였다. 모든 시민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이성에 근거한 지식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몽할 수 있게 하며 근대성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칸트의 주장은 과연 근대성이 어떻게 완수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천성 있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근대성에 대한 많은 논의 가운데 진보 개념의 등장은 근대성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이상향의 논의를 공간의 유토피아에서 시간의 유토피아로 전환시켰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 있는 이상향을 그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을 강조하게 되었다. 유토피아 이상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잊게 하고 미래에는 해결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는 역할을 하였다.

근대의 이상향 논의는 진보의 개념이 바로 과학 지식의 축적, 합리성,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보다 현실성이 있는 작업으로 다가섰다. 과학적 합리성은 약 16세기에 나타났는데, 이는 현실은 사람의 추상적인 이성으로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합리성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이성에만 의존한 이상향은 테크놀로지의 결합으로 한층 구체화 되었다.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한 꿈의 실천성보다 더 이상 현실적인 논의는 없다. 테크놀로지는 현재화 되어 있으며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크놀로지는 자연과 사람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며, 불완전한 사람들을 미래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바로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진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와 유토피아 논의의

결합은 기술 결정론을 낳게 되면서 테크놀로지가 모든 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인이 라고 하는 논리를 출현시켰다. 이는 테크놀로지, 인간, 사회의 복잡한 관계를 단지 기술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특히, 시간과 공간의 벽을 헐어 버린 전신, 전화, 그리고 라디오의 출현은 테크놀 로지에 대한 경외감과 사회를 유기체로 바라보는 시각과 결합하면서 당시의 사회 질병들을 해결할 수 매체로 간주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배적인 사회인식론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현재 회자되고 있는 초정보고속통신망과 같은 은유가 바로 그것이라 지적할 수 있 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인터넷을 이야기 할 때 테크놀로지의 규정력에 치우친 인 식보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들의 주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주체성 회복을 강조하는 논 의가 바로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스토피아 담론이다. 디스토피아 담론은 유토피아 담론의 테크놀로지 숭배를 경고하는 담론이다. 이는 사람들의 목적 수행을 위한 수 단으로서의 테크놀로지가 목적 그 자체로 자리잡게 되면서 역으로 사람들을 지배 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잇점이 있다. 맹목적인 테크놀로지에 대한 믿음을 한 번 짚은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테크놀로지에 대한 재조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토피아 담론과 마찬가지로 디스토 피아 담론 또한 테크놀로지를 모든 사회 체계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 는 개체로서 이해함이 문제이다.

테크놀로지는 사람들과 같이 존재하고 있고 사회 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테 크놀로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테크놀로지, 사람, 그리고 사회 등과의 관계속에서 논의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를 논의하는 기술 결정론과 사회 구성론을 살펴보았으나, 두 논의가 공히 테크 놀로지와 사회의 관계를 일직선의 방향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와 사회의 관계를 일방향으로 바라봄은 앞에서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담론과 유사 함을 밝혔다. 사람들은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그것과 함께 삶을 영위한다. 이는 테크

놀로지와 관계를 맺는 모든 실체들과의 변증법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테크놀로지의 변증법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테크놀로지, 사람, 사회, 그리고 환경의 제관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변증법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과연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해롤드 이니스와 마샬 맥루한의 매체 이론을 조명함으로써 사람,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그리고 사회 등은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때의 변증법은 헤겔과 맑스의 변증법이 아님을 밝힌다. 그들의 변증법은 비록 정, 반, 합의를 빌어서 부정의 사유를 강조하였지만, 결국에는 선의 사회로 이행한다고 하는 다소 유토피아적인 목적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부정의 사유를 통해 진리를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회 개체들의 동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는 변증법과 같이 최종의 목적을 위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듯이 비동일성, 부정 등의 연속이다. 모든 사물, 인식들의 통합이 아니라 결국에는 계속되는 부정의 역사이다. 이러한 아도르노의 부정 변증법의 형식과 유사한 접근 방법으로 이니스는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조명하고 있다.

“왜 우리들은 항상 주목하는 것에만 주목하는가(Why do we attend to the things to which we attend?)” 이니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지배적인 매체와 지배적인 권력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매체 혹은 매체의 물리적 특성에서 나오는 편향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적 매체와 지배적 권력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체계와 동학을 통해 각 역사적 시기의 특징적인 사회 양식이 생겨남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 매체가 그 사회가 보여주는 특정한 양식을 곧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권력의 독점이라는 것을 통해 한 사회의 특정한 양식이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각 역사적 시기마다 그 문명의 가장 중요한 정보들은 지배적인 매체에 담겨져 있었는데 이 지배적인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고대에는 극히 일부였다는 것이다. 이 지배적인 매체에 접근성이 극히 일부에게 제한되어 있는 이 상황을 이니스는 ‘지식의 독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지식의

독점은 권력의 독점과 밀접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은 모든 사물등의 동일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니스는 새로운 지식의 맹아들이 오래된 체계의 주변부(marginals)에서 출현하고, 항상 새롭고 필적할만한 미디어를 동반한다. 즉 비동일성이라고 인식되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이용하여 지배 세력과 필적할 만한, 심지어 다시 중심부로 이행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매체, 사람, 그리고 사회 체계는 부정의 부정(negation of negation)을 통해 진행되어 왔다.

이니스 영향을 받은 맥루한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사람들의 감각과의 관계를 빌어 매체의 정체성을 논하고 있다. 그는 매체의 핵심적 성격은 매체 그 자체의 물리적 특징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각각의 매체는 인간의 감각들의 연장이며 또한 각 감각들은 자신들만의 공간(space)을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귀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인 공간은 시각, 촉각, 후각 등에 의해 만들어진 물리적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기에는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라는 이분법적 도식을 통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러한 설명보다 시각적 공간/청각적 공간과 같은 설명을 선호하고 있다. 시/청각적 공간이라는 그의 개념화에서 맥루한은 매체 자체(figure)보다는 보이는 미디어와 인간 감각이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 내는, 보이지 않는 심미적 경험의 공간(ground)과 그것의 전환을 가장 중요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이는 것(figure)과 보이지 않는 것(ground)의 관계는 맥루한의 감각의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매체는 사람들의 감각의 연장으로서 사람들은 실체를 그들의 감각과 피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인지하게 된다. 이 때의 오감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데 이러한 개별 감각은 공유 감각에서 통합되어 나타난다. 공유 감각은 우리들 내부에서 활동 중인 여러 감각들 사이의 동시적인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공유 감각은 개개인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개인의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수준 혹은 문화나 문명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유 감각

은 한 문명 내에서 보이지 않는 바탕(ground)으로 작동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들(figure)의 파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맥루한은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지가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그들의 오감의 균형을 가져다 주는 공유 감각의 균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측정될 수 있고, 체계화될 수 있으며, 범주화 될 수 있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다. 우리들이 바람, 태양, 강 등을 잠재적인 에너지 원천으로 보면, 우리들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들의 사용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그 후의 우리들의 인식도 그에 준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환경을 범주화 할 것이다. 이렇게 인식된 자연을 테크놀로지를 통해 우리들에게 현실화시킨다. 그러나, 해당 테크놀로지는 다시 우리들에게 실체(reality)의 특정한 면을 주목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망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못을 찾을 것이다. 사람들의 망치는 아마도 우리들의 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의 기능은 바로 주로 세상에 대해 행동에 근거한 관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인지 과학에 있어서의 연구들이 지적하기를,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체화된 존재는(embodied way of being)로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틀로서의 다수의 스키마와 은유들을 생성시킨다. 세상은 바로 기술적인 세계에서 접근 가능하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응용된 과학이 아니다. 과학 자체가 바로 테크놀로지이다. 이는 바로 과학으로 인해 우리들은 세상을 혹은 실체(reality)를 기본적으로 수학적으로, 즉, 논리적인 언어로 이해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테크놀로지는 단순히 세상을 살기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의 노력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도구가 아니다. 바로 실체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세상과 테크놀로지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명확하게 분리가 된 존재론적 영역이 아니다. 반대로, 테크놀로지와 세상은 상호 작용하여 상대를 변형시키고 또한 섞이곤 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은 실체를 다른 방법으로 구조화하며 그것들은 우리들의 세상에 대한 인지 틀을 급격하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망원경, 위성, 현미경, 형광등 등 무한정으로 그 예를 들 수가 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들이 테크놀로

지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생존하기 위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도구라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여전히 지금까지 인정되고 있는 논의이다. 실제로 이러한 논의는 사람들이 실체를 통제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렇게 실체를 지배한다고 보는 견해는 환상이다. 대신에, 테크놀로지 와 사람들의 관계는 단순히 의식적인 통제가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결국, 테크놀로지, 특히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사람들이 환경을 어떻게 인지하며 인지하고 싶은가에 영향을 주면서 더불어 그렇게 인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간의 계속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테크놀로지는 존재한다.

본 보고서를 다음의 말로써 가름하고자 한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 무렵에 날기 시작한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지혜의 신을 의미하며 황혼은 문명의 최고 정점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테크놀로지, 사람들, 그리고 환경 등의 변증법적 관계, 이니스의 매체에 대한 논의, 그리고 맥루한의 논의 등을 고려 할 때 미네르바의 올빼미에 대한 구절은 한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이다. 지금까지, 효율성이라는 이름아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행보가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논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테크놀로지 정책보다는 환경으로서의 테크놀로지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으로서의 테크놀로지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체제이든지 해당 체계를 관장하는 인지 구조(social epistemology 혹은 habitus)체계가 세월이 흐르면서 경직되어 외부의 충격 혹은 내부의 변화를 흡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해당 사회 혹은 체제는 멸망의 길에 들어선다.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이 환경을 재구성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기제이고, 해롤드 이니스와 마셜 맥루한 등이 주장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사회 그리고 사람들의 감각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회의 테크놀로지 정책은 다양성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즉 오직 하나의 편향과 한정된 감각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 나아가 사회는 자신들의 인지 체계를 객관화 시키면서 플라톤의 동굴에서 삶을 영위하는 결과가 나

타난다.

어느 사회든지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디어의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 of ideas)”이 필요하다. 어느 하나의 편향 혹은 어느 한 쪽의 감각이 해당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된 편향과 공감각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러한 균형의 편향과 공감각은 곧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갖고 온다. 현재의 인터넷 정책을 살펴보면 앞의 논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인터넷 상에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중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이라는 슬로건에 입각한 인터넷 정책을 고집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인터넷이라는 환경과 인간을 맺어주는 기제의 정체성이 축소되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의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은 이제는 더 이상 테크놀로지가 수단도 아니고 목적도 아닌 환경으로서 인지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현재, 물질(자연)의 세계, 사회(social world),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공간과 시간의 축에서 공간 편향의 정책이다. 이에, 환경으로서의 테크놀로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균형을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랜던 위너, 1999. 「기술 철학자의 사회구성주의 비판」, 위비 바이커 외 지음, 287-310 쪽, 서울: 새물결.
- “A century of progress in the United States,” *Scientific American*, 83(26), 1900: 400-402, 재인용, Douglas: 7, Douglas, S. (1987). *Inventing American Broadcasting: 1899-1922*.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The moral influence of the telegraph,” *Scientific American*, 15 October, 1881, 240, 재인용, Marvin, 199-200
- “The nerve of the Continent,” *Philadelphia North American*, 15 January, 1846, 재인용, Czitrom: 12
- Adams C J (1996) This is not our fathers’ pornography: sex, lies, and computers, in Ess C(ed.)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147-170.
- Adrianson, L. & Hjelmquist, E. (1991) Group process in face-to-face and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4, 281-296.
- Arthur, P., (1926). *The telephone idea: Fifty years after*. New York: Greenberg Press.
- Bacon, F. (1952). *The new atlantis*. Chicago:Encyclopedia Britannica.
- Barlow, J. P. (1994년 3월). “The economy of ideas: A framework for rethinking patents and copyrights in the digital age,” *Wired*, 2(3), p.85.
- Barney, D. (2000). *Prometheus Wir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ninger, J. (1987) Personalization of mass media and the growth of pseudo-community, *Communication Research*, 14:3, 352-371.
- Bijker, W. E., & Law, J. (1992) (eds.)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MIT Press, Cambridge, Mass.

- Bijker, W. (1995). *Of bicycles, bakelites, and bulbs - Towards a theory of sociotechnical chan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Bijker, W., Wiebe E., & John Law. (1994). *Shaping Technology/Building Society: Studies in Sociotechnical Change*. Cambridge: The MIT Press.
- Birkerts, S. (1996) The electronic hive - refuse it, in Kling, R.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2nd Edition, Academic Press, San Diego, pp.79 ~ 82.
- Boguslaw, R. (1965) *The New Utopians*, Prentice-Hall, NJ.
- Bolter, Jay David. (1996년 7월). *Electronic technology and the metaphor of the city, Telepolis*. (<http://www.ix.de/TP/issue196/nfnavsp.htm>).
- Boyd, J. (1899). *Triumphs and Wonders of the 19th Century*. C. W. Stanton. Boston: Unwin Hyman.
- Bromley, H. (1997, Winter). The social chicken and the technological egg. *Educational Theory*, 47(1), 51-65.
- Brooks, J. (1977). "The first and only century of telephone literature," in Ithiel de Sola Pool, ed., *The social impact of the telephon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Bunge, M. (1985). "Technology: From engineering to decision theory," In *Treatis on basic technology*, Vol 7: Epistemology and methodology III: Philosophy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t 2, pp.219 ~ 311.
- Burgess, J. (1994년 3월 6일). "Policing the Internet frontier," *The Toronto Star* B1.
- Buxton, W. (1998). "Harold Innis's excavation of modernity: The newspaper industry, communications, and the decline of public life."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23(3), 321-340.
- C. Towne. (1893, May 13). "Magnetism and electricity," *Science Siftings*, 13, 25. 재인용, Carolyn Marvin.
- Campbell, D. (1974). "Unjustified variation and selective retention in scientific dis-

- covery,” in F. J. Ayala and T. Dobzhansky, (Ed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biology*, pp. 139-16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arey, J. (1969). “Harold Innis and Marshall McLuhan” in *McLuhan: Pro & Con*, Raymond Rosenthal(Ed). NY: Pelican Book.
- Carey, J.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Boston: Unwin Hyman.
- Carey, J. (1981). “Culture, geography and communications: The work of Harold Innis in an American context.” in W. H. Melody, L. Salter, and P. Heyer (Eds.), *Culture, communication, and dependency: The tradition of H. A. Innis*. Norwood, N. J.: Ablex.
- Castell, M. (1996). *The rise of network society*.
- Certeau, Mariel de. (1988).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y.
- Cherry, C. (1977). The telephone system: Creator of mobility and social change, pp.112 ~ 126. In I. Pool (Ed.). *The social impact of the telephone*. Cambridge, MA: The MIT Press.
- Christian, W. (1977). “Harold Innis as Political Theorist.”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1). 21-42.
- Collins, R. (1977). *A voice from afar: The history of telecommunications in Canada*, Toronto: McGraw-Hill Ryerson.
- Comor, E. (1994). ‘Harold Innis's Dialectical Triad’, *Journal of Canadian Studies*, 29(2), 111-127.
- Comte, A. (1998). *Early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dorcet, J.(1955). *Sketch for a historical picture of the progress of the human mind*. Trans. June Barraclough. London.
- Covert, C., & Stevens, J. (1984). *Mass media between the wars*. Syracuse, NY: Syracuse University Press.

- Cox, R. (1995). "Civilizations: Encounters and transformations."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A Socialist Review*(Summer, 1995) no. 47. 7-32.
- Crowley, D. (1981). "Harold Innis and the modern perspective of communications." In W. H. Melody, L. Salter, and P. Heyer (Eds.), *Culture, Communication, and Dependency: The tradition of H. A. Innis*. Norwod, N. J.: Ablex, pp. 235-246.
- Crowley, D., & Heyer, P. (1995). *Communication in history: Technology, culture, society*, 2nd edition. White Plains, NY: Longman.
- Czitrom, D. (1982). *Media and American Mind: From Morse to McLuhan*.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Dahlbom, B., & Mathiassen, L. (1996) Power in systems design, in Kling R (1996)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Academic Press, San Diego, 2nd edition, 903-906.
- Daniel Davis (1851). *Books of the telegraph*. Boston: D. Davis.
- Dawkins, R. (1976). "Preface," *The selfish ge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quoted by Liam F. Heaney, "The essence of language: Metaphorically speaking," *Contemporary Review*, 266(1553), (1995년 6월).
- Dewey, J. (1916).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ewey, J. (1925). *Experience and nature*. Chicago: Open Court.
- Di Norcia, V. (1990). "Communications, Time and Power: An Innisian View."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2). 335-357.
- Doctorow, E. L. (1977). False documents, *American Review*, 29, pp.231 ~ 232.
- Donald M. (November 1982) "Telegraphing of electron returns," *American Telegraph Magazine*, 1, 74, 76, 재인용, Czitrom.
- Douglas, S. (1987). *Inventing American Broadcasting: 1899-1922*,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ryzeck, J. (1982). Policy analysis as a hermeneutics activity, *Policy Science*, 14, pp.

309~329.

- Dutton, W. (Ed.) (1996)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Visions and Realities*, Oxford University Press, UK.
- Edge, D (1994)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in Heap N, Thomas R, Einon G, Mason R, and Mackay, H (1995) (ed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ety*, Sage, London.
- Eisenhardt, K. (1989) Building theory from case study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4, 532-550.
- Ellul, J. (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 (Trans.) John Wilkinson. New York: Vintage Book.
- Ess, C. (Ed.) (1996)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 Feenberg, A. (1991). *Critical theory of tech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Fisher, C. (1992). *America cal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ranklin, Ursula. (1989). "The Real World of Technology" The Massey Lectures: Audio Ottawa: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1989. http://www.masseylectures.cbc.ca/M_Audio.html#franklin.
- Frye, N. (1993). "Harold Innis: The strategy of culture." In Robert D. Denham (ed.), *The Eternal Act of Creation: Essays. 1979-1990*.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54-167.
- Galbraith, J. K. (1967). *The new industrial state*. Boston: Houghton Mifflin.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Basic Books.
- George, J. F., & King, J. L. (1991) Examining the computerization and centralization debate, *Communications of the ACM*, 34:7, 63-72.
- Gibson, Steve. (1995년 4월). Universal disservice. *Reason*, 26(11), pp.47~49.
- Giddens, A. (1989). A reply to my critics. In D. Held & J. B. Thompson (Eds.), *Social*

- theory of modern societies: Anthony Giddens and his critics* (pp.249-30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ddens, A. (1990). *The consequences of moderni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trauss A(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Aldine Publishing, New York.
- Gozzi, Jr. Raymond. (1994년 가을).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as metaphor,”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51(3), pp.321 ~ 326.
- Gozzi, Jr., Raymond. (1994여름). “The cyberspace metaphor,”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51(2), pp.218 ~ 223.
- Habermas, J. (1969). *Technology and science as “ideology.”* Frankfurt: Suhrkamp Verlag.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I*. Boston: Beacon Press.
- Heidegger, M. (1962). *Being and time*, trans. J. Macquarrie and E. Robinson. London: SCM Press. First Published as *Zein und Zeit* in 1927.
- Heidegger, M. (1977). *The question concerning technology and other essays*. Sanfransisco: Harper and Row.
- Herbert C., “The social value of the telephone,” *The Independent.*, 26 October 1911, 901, 재인용, Pool: 79
- Hudson D (1997) *Rewired*, Macmillan Technical Publishing, Indiana.
- Hughes, T. (1988). *Networks of power*. Baltimore, MD: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Ihde, D. (1990). *Technology and the lifeworld: From garden to eart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Innis, H. A. (1935). “The role of intelligence: some further note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 280-287.
- Innis, H. A. (1946). *Political Economy in the Modern State*. Toronto: The Ryerson Press.
- Innis, H. A. (1950). *Empire and Communications*. Oxford: The Clarendon Press.

- Innis, H. A. (1951).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Ithiel de Sola Pool. (1983). *Technologies of Freedo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 John Malone. (1993년 9월 30일). *ABC World News Tonight*.
- Jones, S. (1995) *Cyber Society*, Sage Publications, CA.
- Joseph Henry, 재인용 C. T. McClenachan, *Detailed report of the proceedings had in commemoration of the successful laying of the Atlantic telegraph cable*, New York: E. Hones and Co., 1859, 227, 재인용, Czitrom.
- Judge, Anthony N. (1993년 4월). Metaphor and the language of future, *Futures*, 25, 287-288.
- Kelly, K. (1996) The electronic hive - embrace it, in Kling, R.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2nd Edition, Academic Press, San Diego, pp.75~78.
- Kiesler S, Siegel J., McGuire T. W. (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10, 1123-1134.
- Kling, R. (1996a)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Academic Press, San Diego, 2nd edition.
- Kling, R. (1996b) Reading "all about" computerization: how genre conventions shape non-fiction social analysis, *The Information Society*, 11:4, 147-172.
- Kling, R., & Iacono, S. (1990) Making a computer revolution, *Journal of Computing and Society*, 1:1, 43-58.
- Kraemer, K., & Dutton, W. (1991) Survey research on information systems, in Kraemer K (ed.) *The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Challenge: Survey Research Methods*, vol. 3, Harvard Business School, Boston, 3-57.
- Kroker, A. (1984). *Technology and the Canadian Mind: Innis, McLuhan, Grant*. NY: St. Martin's Press.
- Kumar, K. (1991). *Utopianis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don, W. (1986). *The Whale and the Reactor: A Search for Limits in an Age of High Techn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don, W. (1991). *Upon opening the black box and finding it empty in the Technology of discovery and the discovery of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Philosophy and Technology, Pitt & Lugo (Eds.), Blacksburg, VA.
- Latour, B. (1988). "Mixing humans and non-humans together: The sociology of a door-closer," *Social Problems*, 35, 298-310.
- Laurence T., *Electro magnetic telegraph, with an historical account of its rise, progress, and present condition*. Philadelphia: A Hart, 1853, 재인용, Czitrom.
- Laurence, E. (September, 1989). "The progress of electricity," *Harper's New Monthly*, 39,
- Law, J. (Ed.). (1991). *A sociology of monsters: Essays on power, technology, and domination*. New York: Routledge.
- Lea, M. (1991) Rationalist assumptions in cross-media comparison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ehaviour and Information Technology*, 10:2, 153-172.
- Lea, M. (1992) Introduction, in Lea M (ed.) *Contex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arvester Wheatsheaf, Hemel Hempstead, Hertfordshire, 1-6.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D. Nicholson-Smith, Trans.). Oxford: Basil Blackwell Inc. (Original Work Published 1974).
- Leo Bogart. (1995년 겨울). Highway to the stars or road to nowhere, *Media Studies Journal*, pp.152~171.
- Lyman, P. (1999년 11/12월). What should we call the net? *Educom Review*, 34(6), pp. 26~34.
- Lyon, D. (1988) *The Information Society*, Polity Press, Cambridge.

- MacKenzie, D., & Wajcman, J. (1985). (eds.)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Open University Press, Milton Keynes.
- Marshall, C., & Rossman, G. (1989). *Designing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 Marvin, C (1988). *When Old Technologies were New*,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 Marvin, C. (1983). 'Space, time, and captive communications history', in M. S. Mander (ed.) *Communications in Transition*, New York: Praeger, pp.20~38.
- Marvin, C. (1988). *When old technologies were ne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L. (1964). *The Machine in the garden: Technology and the pastoral idea in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rx, L. (1994). "The idea of 'Technology' and Postmodern Pessimism." in *Does Technology Drive History? The Dilemma of Technological Determinism*, Merritt Roe Smith, A. R., & Leo Marx, (Eds.), 237-257. Cambridge, Mass: MIT Press.
- Matthews, J. (1991). *Toward a new society: American thought and culture, 1800-1830*. Boston, Twayne Publishers.
- Maynaud, J. (1968). *Technocracy*, Faber & Faber, London.
- McGarty, T. (1992). "Alternative networking architectures: Pricing, policy, and competition", pp.218~270 in B. Kahim (Ed.), *Build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New York: McGraw Hill.
- McLuhan, M. & Eric McLuhan (1988). *Laws of Media: The New Scienc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cLuhan, M. (1960). *Report on Project in Understanding New Media*. NY: 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al Broadcasters, Office of Educat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McLuhan, M. (1962). *The Gutenberg Galaxy: The Making of Typographic 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McLuhan, M. (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Y: McGraw-Hill.
- McLuhan, M. (1975). "Communication: McLuhan's Laws of Media," *Technology and Culture*, 16 (1).
- McLuhan, M. (1987). *Letters of Marshall McLuhan*. Matie Molinaro, Corinne McLuhan, & William Toye (Eds). Toronto: Oxford University Press.
- McLuhan, M. (1988). *Laws of Media*.
- McLuhan, M., Quentin Fiore & Jerome Agel (1967). *The Medium is the Massage: An Inventory of Effects*. NY: Bantam Books.
- Merril Moris & Christine Ogan. (1996년 겨울). "The Internet as mass medium" *Journal of Communication*, 46(1), pp.39~50.
- More, T. (1997). *Utopia*. Ware: Wordsworth Classics.
- Mumford, L. (1962). *The myth of the machine*.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Inc.
- Nicholas Berdyaev. (1934). *The bourgeois mind and other essays*. New York: Sheed and Ward.
- Nisbet, R. (1980). *History of the idea of progress*. London: Heinemann Education Books Ltd.
- Noble, D. (1979). *America By Design: Science, Technology, and the Rise of Corporate Capit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Nye, D. (1994). *American technological sublime*, Cambridge: MIT Press
- Oliver Lodge. Modern views of electricity 3rd. Edition. London: Mcmillan and Co., 1907, 461, 재인용, Czitrom: 65.
- Orlikowski, W. (1992), "The Duality of Technology: Rethinking the Concept of Technology in Organizations," *Organization Science*, 3(3), 398-427
- Ortony, A. (Ed.). (1993). *Metaphor and Though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ker, I. "Innis, Marx, and the economics of communication: A theoretical aspect of Canadian political economy." In William H. Melody, Liora Salter, and Paul Heyer (eds.), *Culture, Communication and Dependency*. Norwood, New Jersey. 127-143.
- Paul A. David. (1992). Heroes, herds, and hysteresis in technological histor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 pp.129~180.
- Paul Evan Peters. (1995년 3월/4월). The next birther application in cyberspace. *Educom Review*, 30(2), pp.10~11.
- Peltu, M, MacKenzie D, Shapiro S and Dutton W H (1996) Computer power and human limits, in Dutton W H (1996) 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77-196.
- Peter Lyman. (1999년 11월/12월). What should we call the Net? *Educom Review*, 34(6), pp.9~26.
- Pool, I. (1983). *Forecasting the Telephone: A retrospective technology assessment of the telephone*. Norwood, NJ: Ablex Publishing.
- Pool, I. (1983). *Technologies of Freedo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app Fr. (1999). "The material and cultural aspects of technology," *Techné: Journal of the society for philosophy and technology*, 4(3).
- Ratcliffe, Mitch. (1994년 9월 13일). It's not a really road. *Digital Media*, 4(4), p.2 & p.3.
- Rheingold, H (1993) A slice of life in my virtual community, in Harasim L M (1993) (ed.) *Global Networks*,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57-80.
- Samuel Morse to House Committee on Commerce, 15 February 1838, in U.S. House, Committee on Commerce, Electron-Magnetic Telegraphs, 25th Congress, 2d session, 1838, House Report 753, appendix C, p.2 재인용, Czitrom.
- Sawhney, H. (1996). Information superhighways: Metaphors and midwives. *Media, Culture, and Society*, 18, pp.291~314.

- Shapiro, A. (1999). *The control revolution: How the Internet is putting individuals in charge and changing the world we know*. New York: A Century Foundation Book Public Affairs.
- Simon, H. A. (1981). *The sciences of the artificial*, 2d ed. Cambridge: MIT Press.
- Sproull L & Kiesler S (1991) *Connections, new ways of working in the networked organization*,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Stamps, J. (1995). *Unthinking Modernity: Innis, McLuhan, and the Frankfurt School*. Montreal: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erling, B. (1993년 2월). "Internet," *The Magazine of Fantasy and Science Fiction*, Science Column # 5.
- Stewart T A (1996) Boom time on the new frontier, in Kling R (1996)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Academic Press, San Diego, 2nd edition, 67-74.
- Stoll, C. (1995) *Silicon Snake Oil*, Macmillan, London.
- Strangelove, M. (1993년 11월). "Advertising on the Internet," *The Internet Business Journal*, 1(5). pp.2~20.
- Strauss, A., & Corbin, C. (1994) Grounded theory methodology: an overview, in Denzin N K and Lincoln Y S (ed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London, 273-285.
- Streeter, T. (1987) The cable fable revisited: Discourse analysis, policy, and the making of cable television,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4(2), pp.174~200
- Stuart, Jay Kaplan (1990), "Visual metaphors in the representation of communication technology,"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7, p.41.
- Talbott, S. (1995) *The Future Does Not Compute*, O'Reilly and Associates, US.
- Urwick, E. J. (1935). "The role of intelligence in the social process,"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1: 64-76.
- Waldenfels, B. (1995). "The scope of technology," *Sociological Problems Quarterly*, 2,

105-115.

- Webster, F. (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Routledge, London.
- Weedman, J. (1991) Task and non-task functions of a computer conference used in professional education: a measure of flexi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Man-Machine Studies*, 34, 303-318.
- William, C., "On the municipal telegraph,"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 2d. Series, 63, May 1852, 53-59, 재인용 Czitrom.
- Williams, R., & Edge, D. (1996) The social shaping of technology, in Dutton W H (1996) 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53-68.
- Wilson Dizard (1985). *The coming information age, 2nd*. New York.: Longman.
- Winner, L. (1996a) Electronic office: playpen or prison, in Kling R (1996) 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Academic Press, San Diego, 2nd edition, 83-85.
- Winner, L. (1996b) Who will be in cyberspace? *Information Society*, Vol. 12, 38-52.

● 저 자 소 개 ●

이 호 규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현 동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 상 호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 석사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
- 현 대구대학교 언론매체학과 교수

김 대 식

- 계명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 현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위원

04-46

새로운 미디어와 유토피아적 이미지의 진화

2004년 2월 일 인쇄

2004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이 주 현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1-1

TEL: 570-4114 FAX: 579-4695~6

인쇄인 성문화
